

제1장

2007년 선거방송토론 개관

2007년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2004년 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그동안 실시하였던 제17대 국회의원선거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그리고 각종 재·보궐선거에서의 선거방송토론을 완벽하게 관리·운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각 정당의 정강·정책과 국정현안 등에 대하여 상호 비교할 수 있는 3차례의 공직선거정책토론회와 대통령후보자의 소신·철학과 정견 등을 비교할 수 있는 4차례의 대통령선거후보자토론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특히, 후보자토론회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토론진행방식 및 분야별 토론의 제를 발굴·조사하고 각 정당과 공영방송사 등 유관기관의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제17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를 공정하고 완벽하게 주관·진행하였다.

후보자토론회 개최와 관련하여 대선 후보자들이 한데 모여 처음으로 정책대결을 벌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고 제시된 주제 등을 놓고 그 나름의 열띤 공방을 펼쳤다는 의견 등도 제시되었으며 UCC동영상 질문을 처음으로 활용한 것은 신선했다는 평가도 아울러 있었다. 그러나, 토론에 참여하는 후보자 수가 많아 쟁점의 대립점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으며 역동성이 떨어지고 밀도있는 토론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었다.

한편, 국민에게 각 정당의 정강·정책과 국정현안 등에 대한 상호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차례의 정당정책토론회도 개최하였다.

그리고, 상·하반기 재·보궐선거 및 교육감선거의 각종 방송토론을 차질없이 준비·관리하였으며 2008년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방송토론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을 정비하고 선거방송토론 담당자들의 실무연수 기회를 마련하여 선거방송토론 실무능력을 배양하였다.

아울러, 대학생들의 올바른 토론관 확립을 통해 토론문화 저변을 확산하고 민주시민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한 민주시민 토론문화 육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제 1 절 일반현황

1. 설치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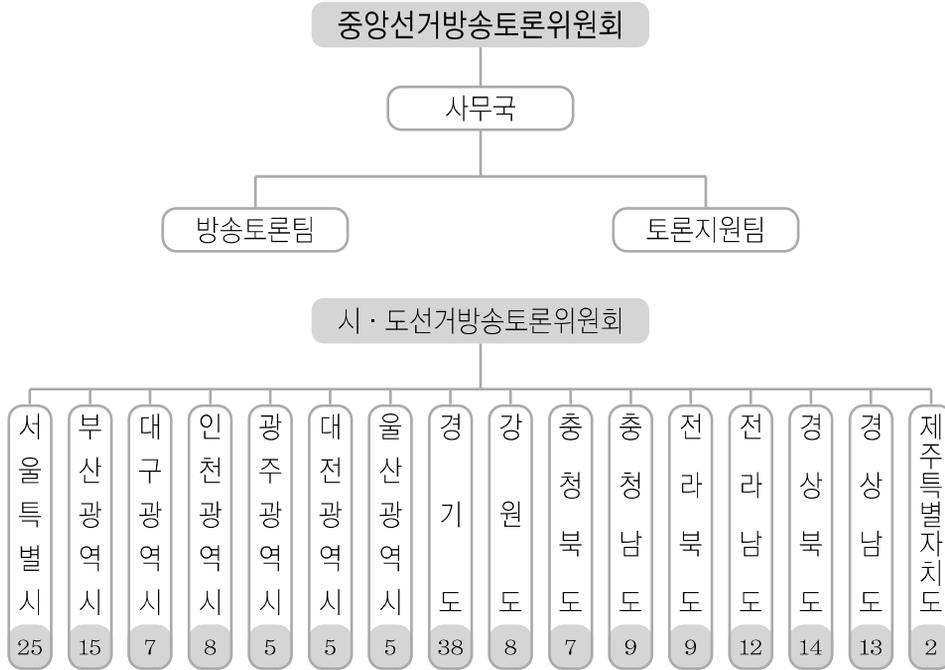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의 규정에 의한 대담·토론회와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의 규정에 의한 정책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주관·진행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다.

2. 직 무

-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등 관리
 -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 시·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 정책토론회 관리
 - 「공직선거법」상의 정책토론회
 - 「정당법」상의 정책토론회
- 민주시민 토론문화 육성 등을 위한 교육·연수
- 토론회 등의 기법 연구 및 개발

3. 조 직

(2007. 12. 31 현재)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중앙, 시·도, 구·시·군 단위로 조직되어 있으며,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및 공영방송사가 추천하는 자 각 1인과 방송위원회·학계·법조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등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촉한 자를 포함하여 9인(중앙은 1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임기는 3년이다.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정당의 당원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상임위원 1인을 두고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명하도록 하고 있다.

[표 1-1] 위원명단(중앙)

(2007. 12. 31 현재)

직 위	성 명	현 직	추 천 기 관
위원장	이 성 춘	언 론 인	자 체
상임위원	정 병 운	공 무 원(행정학 박사)	자 체
위 원	박 동 영	KBS 이사	대 통 합 민 주 신 당
	홍 진 표	자유주의연대 사무총장	한 나 라 당
	김 찬 태	KBS 선거방송프로젝트팀장	K B S
	성 경 섭	MBC 보도제작국 보도전략팀장	M B C
	임 동 훈	방송위원회 위원	방 송 위 원 회
	최 향 순	교 수	학 계
	정 영 환	변 호 사	대 한 변 협
	이 갑 산	공선협 공동대표/집행위원장	공 선 협

사무기구로는 중앙과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사무국을 두고, 구·시·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고 있다.

4. 선거방송토론의 종류

[표 1-2] 선거방송토론의 종류 및 개최횟수

주 관	종 류	선 거 별	개 최 시 기	횟 수	근 거 법 률
중 앙	후 보 자 초 청 대 담 · 토 론 회	대 통 령 선 거	선 거 운 동 기 간 중	3회 이 상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비 례 대 표 국 회 의 원 선 거	"	2회 이 상	
	공 직 선 거 정 책 토 론 회	임 기 만 료 선 거	선거일전 90일부터 후 보 자 등 록 신 청 개 시 일 전 일 까 지	월1회 이 상	「공직선거법」 제82조의3
	정 당 정 책 토 론 회	연 중	임 기 만 료 에 의 한 공 직 선 거 의 선 거 일 전 90일부터 선 거 일 까 지 의 기 간 제 외	연2회 이 상	「정당법」 제39조
시 · 도	후 보 자 초 청 대 담 · 토 론 회	시 · 도 지 사 선 거, 비 례 대 표 시 · 도 의 원 선 거	선 거 운 동 기 간 중	1회 이 상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구 · 시 · 군	대 담 · 토 론 회 또는 합 동 방 송 연 설 회	지 역 구 국 회 의 원 선 거, 자 치 구 · 시 · 군 의 장 선 거	"	1회 이 상	

제 2 절 목표 및 중점과제

목 표

- 대통령선거 방송토론회의 공정하고 완벽한 주관·진행
- 미디어정치 시대를 주도하는 토론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 강화



중점과제

- ① 제17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및 정책토론회의 바르고 흠없는 관리
 - 객관적이고 투명한 토론회 준비 및 진행으로 신뢰성 확보
 - 국민적 관심을 끌 수 있는 의제와 토론방식 채택
 - 원활한 진행을 위한 정당·방송사 등과의 협력체제 구축
- ② 제18대 국회의원선거 방송토론의 관리역량 강화
- ③ 토론문화의 지속적인 저변 확산 추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2007년 목표를 【대통령선거 방송토론회의 공정하고 완벽한 주관·진행】 과 【미디어정치 시대를 주도하는 토론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 강화】 로 삼고 ▲ 제17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및 정책토론회의 바르고 흠없는 관리 ▲ 제18대 국회의원선거 방송토론의 관리역량 강화 ▲ 토론문화의 지속적인 저변 확산 추진을 중점과제로 설정하여 추진하였다.

제2장

2007년

선거방송토론 주요 성과

제 1 절 정책토론회 관리

1. 개 요

정당정책토론회는 「정당법」 제39조(정당정책토론회)의 규정에 의거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대통령선거)의 선거일전 90일(2007. 9. 20)부터 선거일(2007. 12. 19)까지를 제외한 기간 중 2회를 개최하였다. 참여대상은 국고보조금을 배분받는 정당이며 중앙당의 대표자와 중앙당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자를 토론자로 초청하였다.

공직선거정책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의 규정에 의거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90일(2007. 9. 20)부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일(2007. 11. 24)까지의 기간 중 월 1회씩 총 3회를 개최하였다. 참여대상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과 직전 대통령 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며 정당의 대표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토론자로 초청하였다.

2. 주요 추진실적

가. 정당관계자 업무협의회 개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정책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 및 개최에 대한 위원회와 정당간의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2007. 2. 5(월) 관악청사 3층 위원회의실에서 정당관계자 업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2007년 선거방송토론 개최일정’을 전체적으로 안내하고 정책토론회 참석자 대상을 협의하였으며 기타 선거방송토론 관련 주요업무 등을 안내하였다.

한편, 참석한 모든 정당의 토론실무 관계자는 토론회 중계가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에 편성될 수 있도록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역할을 기대한다면서 정책토론회의 개최일시 결정, 토론주제 선정 및 토론자 선정 등에 대해서 향후 계속적인 협의가 필요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우리위원회는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영방송사와 적극 협의할 것이며 정당에서도 더욱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하였다. 또한, 위원회와의 수시 연락 및 의문사항 문의 등을 통하여 토론회 준비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였다.

나. 정당정책토론회 관리

정당정책토론회는 12월에 대통령선거가 실시되고 공직선거정책토론회가 9월부터 11월까지 월 1회씩 총 3회가 개최됨에 따라, 상반기중에 개최하여 각 정당의 국정현안에 대한 입장과 대안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토론 의제선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분야의 국정의제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의제분과 전문위원을 추가로 위촉하는 등 토론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의제 수집을 위한 전문가 단체를 확대하여 추천

의뢰하였으며 여론조사를 통하여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등 객관적이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토론의제가 선정되도록 하였다.

또한, 수시로 공영방송사와의 업무협의를 통하여 중계방송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클로징 자막을 통하여 시청자에게 우리 위원회의 활동상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협의하고 추진하였다. 토론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토론자 주도 상호토론방식을 통한 역동적인 진행방식의 도입, 스튜디오 내 방청객 입장, 다양한 화면구성 등으로 토론회의 역동성을 강화하였다.

특히, 토론회 개최전 직원간의 토론진행방식에 따른 역할을 분담하여 예행 연습을 실시하여 토론회 준비 및 진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였다. 2차례의 정당정책토론회 개최현황은 [표 2-1]과 같다

[표 2-1] 정당정책토론회 개최현황

구 분	제 1 차	제 2 차
개최일시	2007. 5. 30(수) 10:00~12:00(120분)	2007. 8. 3(금) 23:40~ 8. 4(토) 01:40(120분)
개최장소	KBS TS-3 스튜디오	MBC D 스튜디오
토 론 자	원내대표	대 표 자
토론분야	국정현안 전반	정치·외교·안보
사 회 자	김 민 전(경희대 교수)	신 율(명지대 교수)
중계주관 방 송 사	KBS	MBC
중계방송	KBS, MBC 동시생중계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는 2007. 5. 30(수) KBS TS-3 스튜디오에서 6개 정당의 원내대표를 초청하여 '한미 FTA 체결의 득과 실',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정책 방향'의 2개 주제를 가지고 개최하였으며 중계방송은 공영방송사인 KBS와 MBC가 동시에 생중계하였다.

다만, 개최일시 결정 과정에서 대상자의 정치적 일정, 방송사의 봄철 프로그램 개편 등 여러 사정으로 개최 일정을 2차례 연기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또한, 토론진행표 작성이나 토론자 발언시간의 엄격한 통제 등 완벽한 토론회 관리를 위하여 보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평가가 이루어졌다.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는 5개 정당의 대표를 초청하여 2007. 8. 3(금) MBC D 스튜디오에서 개최하였다. '북핵문제와 대북정책방향', '바람직한 정부조직과 운영방안' 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사회자의 질문에 토론자가 답변하고 그룹별 상호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 명지대 신을 교수가 사회자로 선정되어 진행하고 공영방송사(KBS, MBC)가 동시에 생중계하였다

1) 토론자(초청대상 정당) 선정

제1차 토론회 토론자는 당초 각 정당의 대표자로 추진하였으나 재·보궐선거 지원 등 정당의 입장을 고려하여 각 정당의 원내대표로 변경하였으며, 중도개혁 통합신당이 당초 불참 통보를 해 온 뒤 개최일 3일전에 다시 참석 통보를 하여 총 6개 정당의 원내대표가 참석하였다.

제2차 토론회는 정치·외교·안보 현안에 대해 각 당 대표자의 견해를 들어볼 수 있도록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에서 초청이 무산되었던 대표자의 초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정당에서 당내경선 진행, 통합 논의 등 현안이 있어 대표자 참석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위원회에서 대표자 초청 토론회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동의를 얻어내어 성사시켰다.

이에, 양 공영방송사와 밤 11시대로 이용일시를 협의하였고, 각 정당에서도 토론회 안내직후 대표자의 참석승낙서를 모두 제출하는 등 개최일시 결정과 토론자 선정에 적극 협조하였다. 2차례의 정당정책토론회 참석 토론자 현황은 [표 2-2]와 같다.

[표 2-2] 참석 토론자 현황

구 분	소 속 정 당	직 위	성 명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한 나 라 당	원 내 대 표	김 형 오
	열 린 우 리 당	원 내 대 표	장 영 달
	중도개혁통합신당	원 내 대 표	최 용 규
	민 주 당	원 내 대 표	김 효 석
	민 주 노 동 당	의 원 단 대 표	천 영 세
	국 민 중 심 당	원 내 대 표	정 진 석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한 나 라 당	대 표 최 고 위 원	강 재 섭
	열 린 우 리 당	당 의 장	정 세 균
	민 주 당	공 동 대 표	박 상 천
	민 주 노 동 당	당 대 표	문 성 현
	국 민 중 심 당	대 표 최 고 위 원	심 대 평

2) 소위원회 구성

2차례의 정당정책토론회의 토론주제 및 진행방식 등에 관한 집중적인 검토를 위하여 상임위원, 공영방송사 추천 위원 각 1인, 학계·법조계 추천 각 1인 등 5인으로 준비소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준비소위원회 구성현황은 [표 2-3]과 같다.

[표 2-3] 준비소위원회 구성 현황

구 분	구 성 위 원	운 영 기 간	직 무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상임위원, 김찬태, 이보경, 최항순, 정영환	의결후 ~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종료시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진행방식(안)의 작성 · 토론회 주제(안)작성 · 토론 질문사항(안) 작성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상임위원, 김찬태, 이보경, 최항순, 정영환	의결후 ~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종료시까지	

3) 사회자 선정

사회자는 위원들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정된 뒤, 사회자에게 선정 사실을 통보하고 토론주제와 진행방식을 안내하였다. 사회자는 토론주제에 대한 질문사항을 작성·제출하고 준비소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토론회를 준비하였다.

[표 2-4] 사회자 선정 현황

구 분	토 론 분 야	사 회 자	전 공
제 1 차 정당정책토론회	국정 현안 전반	김민전(경희대 교수)	정치학
제 2 차 정당정책토론회	정치·외교·안보	신 율(명지대 교수)	정치학

제1차 토론회는 위원들의 추천으로 선정된 경희대 김민전 교수가 진행하였다. 토론회를 진행함에 있어 토론자 발언 초과로 시간이 누적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토론자의 발언시간을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하여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토론회가 순조롭게 마감되지 못한 아쉬운 결과를 초래하였다.

제2차 토론회 사회자 선정과 관련하여 '1차 정당정책토론회 평가회'에서 방송 진행 경험의 중요성이 제기되어, 사회자는 위원회에서 제공한 동영상자료를 함께 보면서 토론진행 능력, 발음 정확성 등 종합적인 내용을 평가한 후 선정하는 방법을 처음으로 시도, 이에 대한 위원들의 평가 후 사회자를 선정하였다.

사회자는 대표자가 참석하는 토론회의 비중과 방송을 진행한 경험에 대한 중요성 등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다수의 추천을 받은 명지대 신율 교수로 선정하였다.

4) 진행방식 선정

제1차 토론회 진행방식은 토론시간과 토론자 수를 고려하여 2개의 주제만을 다루는 방법으로 토론자 그룹을 형성하여 상호 주도권을 가지고 역동적인 토론회가 되도록 토론자 주도 상호토론형을 처음으로 도입함과 동시에 사회자 질문에 의한 토론자 답변후 나머지 토론자들이 보충질문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유도하였다.

특히, 토론진행표와 시나리오 작성시 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실제상황 재현을 통하여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방송에 적합한 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다. 다만, 제2주제 상호토론 보충질문시간 30초를 토론자들이 준수하지 않아 초과 시간이 누적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토론자의 발언 시간을 엄격하게 통제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표 2-5]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토론 주제 및 진행방식

제1주제	토론 주제	한미 FTA 체결의 득과 실
	진행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자 질문(1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영달/김효석/정진석/천영세/김형오/최용규 토론자 답변(각 1분) • 사회자 질문(1분) ➔ 장영달, 김효석 토론자 답변(각 1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영달, 김효석 토론자 주도 상호토론(각 6분) • 사회자 질문(1분) ➔ 정진석, 천영세 토론자 답변(각 1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진석, 천영세 토론자 주도 상호토론(각 6분) • 사회자 질문(1분) ➔ 김형오, 최용규 토론자 답변(각 1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형오, 최용규 토론자 주도 상호토론(각 6분) <p>※ 1회의 질문과 답변시간은 각 1분이내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주도권을 가진 토론자는 그보다 단축하여 답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 사회자는 질문과 답변시간을 초과하여 발언하는 경우 즉각 그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음.</p>
	소요 시간	52분

제2주제	토론 주제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정책 방향
	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자 질문(30초) ➔ 김효석 토론자 답변(1분) • 정진석 토론자 보충질문(30초) ➔ 김효석 토론자 보충답변(1분) 천영세 토론자 보충질문(30초) ➔ 김효석 토론자 보충답변(1분) 김형오 토론자 보충질문(30초) ➔ 김효석 토론자 보충답변(1분) 최용규 토론자 보충질문(30초) ➔ 김효석 토론자 보충답변(1분) 장영달 토론자 보충질문(30초) ➔ 김효석 토론자 보충답변(1분) • 사회자 질문(30초) ➔ 정진석 토론자 답변(1분) • 천영세 토론자 보충질문(30초) ➔ 정진석 토론자 보충답변(1분) 김형오 토론자 보충질문(30초) ➔ 정진석 토론자 보충답변(1분) 최용규 토론자 보충질문(30초) ➔ 정진석 토론자 보충답변(1분) 장영달 토론자 보충질문(30초) ➔ 정진석 토론자 보충답변(1분) 김효석 토론자 보충질문(30초) ➔ 정진석 토론자 보충답변(1분)
	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자 질문(30초) ➔ 천영세 토론자 답변(1분) • 김형오 토론자 보충질문(30초) ➔ 천영세 토론자 보충답변(1분) 최용규 토론자 보충질문(30초) ➔ 천영세 토론자 보충답변(1분) 장영달 토론자 보충질문(30초) ➔ 천영세 토론자 보충답변(1분) 김효석 토론자 보충질문(30초) ➔ 천영세 토론자 보충답변(1분) 정진석 토론자 보충질문(30초) ➔ 천영세 토론자 보충답변(1분)
	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자 질문(30초) ➔ 김형오 토론자 답변(1분) • 최용규 토론자 보충질문(30초) ➔ 김형오 토론자 보충답변(1분) 장영달 토론자 보충질문(30초) ➔ 김형오 토론자 보충답변(1분) 김효석 토론자 보충질문(30초) ➔ 김형오 토론자 보충답변(1분) 정진석 토론자 보충질문(30초) ➔ 김형오 토론자 보충답변(1분) 천영세 토론자 보충질문(30초) ➔ 김형오 토론자 보충답변(1분)
	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자 질문(30초) ➔ 최용규 토론자 답변(1분) • 장영달 토론자 보충질문(30초) ➔ 최용규 토론자 보충답변(1분) 김효석 토론자 보충질문(30초) ➔ 최용규 토론자 보충답변(1분) 정진석 토론자 보충질문(30초) ➔ 최용규 토론자 보충답변(1분) 천영세 토론자 보충질문(30초) ➔ 최용규 토론자 보충답변(1분) 김형오 토론자 보충질문(30초) ➔ 최용규 토론자 보충답변(1분)

제2주제	진행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자 질문(30초) ➔ 장영달 토론자 답변(1분) • 김효석 토론자 보충질문(30초) ➔ 장영달 토론자 보충답변(1분) • 정진석 토론자 보충질문(30초) ➔ 장영달 토론자 보충답변(1분) • 천영세 토론자 보충질문(30초) ➔ 장영달 토론자 보충답변(1분) • 김형오 토론자 보충질문(30초) ➔ 장영달 토론자 보충답변(1분) • 최용규 토론자 보충질문(30초) ➔ 장영달 토론자 보충답변(1분)
	소요 시간	54분
맺음말	진행 방식	• 정진석/천영세/김형오/최용규/장영달/김효석 토론자(각 1분)
	소요 시간	6분

제2차 토론회 진행방식은 정당정책토론회에 활력을 부여하고 시청자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는 토론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국민영상질문’을 제1주제와 제2주제 사이에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으나, 의결과정에서 공정성 문제, 객관적 근거 부족 등의 사유로 채택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이에, 제2차 토론회 진행방식은 사회자 공통질문에 의한 토론자 답변, 토론자 간 상호토론, 사회자 개별(보충)질문에 의한 토론자 답변의 형식으로 결정되었으며 각 당의 대표자가 토론자로 나오는 만큼 기초연설과 맺음말을 두었다.

[표 2-6]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토론 주제 및 진행방식

기초 연설	진행 방식	• 강재섭/문성현/박상천/심대평/정세균 토론자(각 1분)
	소요 시간	5분
제1주제	토론 주제	북핵문제와 대북정책 방향

제1주제	진행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자 질문(30초) ➔ 문성현/박상천/심대평/정세균/강재섭 토론자 답변(각 1분) • 사회자 질문(30초) ➔ 문성현, 심대평 토론자 답변(각 1분) ⇒ 문성현, 심대평 토론자 주도 상호토론(각 4분) • 사회자 질문(30초) ➔ 박상천, 정세균 토론자 답변(각 1분) ⇒ 박상천, 정세균 토론자 주도 상호토론(각 4분) • 사회자 질문(30초) ➔ 심대평, 강재섭 토론자 답변(각 1분) ⇒ 심대평, 강재섭 토론자 주도 상호토론(각 4분) • 사회자 질문(30초) ➔ 정세균, 문성현 토론자 답변(각 1분) ⇒ 정세균, 문성현 토론자 주도 상호토론(각 4분) • 사회자 질문(30초) ➔ 강재섭, 박상천 토론자 답변(각 1분) ⇒ 강재섭, 박상천 토론자 주도 상호토론(각 4분) <p>※ 1회의 질문과 답변시간은 질문은 1분, 답변은 30초이내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주도권을 가진 토론자는 그보다 단축하여 답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p> <p>※ 사회자는 질문과 답변시간을 초과하여 발언하는 경우 즉각 그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음.</p>
	소요시간	58분
제2주제	토론주제	바람직한 정부조직과 운영방안
	진행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자 질문(30초) ➔ 박상천/심대평/정세균/강재섭/문성현 토론자 답변(각 1분30초) • 문성현 토론자 보충질문(1분) ➔ 박상천 토론자 보충답변(1분30초) • 심대평 토론자 보충질문(1분) ➔ 박상천 토론자 보충답변(1분30초) • 박상천 토론자 보충질문(1분) ➔ 심대평 토론자 보충답변(1분30초) • 정세균 토론자 보충질문(1분) ➔ 심대평 토론자 보충답변(1분30초) • 심대평 토론자 보충질문(1분) ➔ 정세균 토론자 보충답변(1분30초) • 강재섭 토론자 보충질문(1분) ➔ 정세균 토론자 보충답변(1분30초) • 정세균 토론자 보충질문(1분) ➔ 강재섭 토론자 보충답변(1분30초) • 문성현 토론자 보충질문(1분) ➔ 강재섭 토론자 보충답변(1분30초) • 강재섭 토론자 보충질문(1분) ➔ 문성현 토론자 보충답변(1분30초) • 박상천 토론자 보충질문(1분) ➔ 문성현 토론자 보충답변(1분30초)
	소요시간	33분

맺음말	진행 방식	• 심대평/정세균/강재섭/문성현/박상천 토론자(각 2분)
	소요 시간	10분

5) 주제 · 질문사항 선정

주제 선정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회의와 절차를 통해 객관적이고 방송에 적합한 주제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토론주제를 선정하기에 앞서 시민단체 등 전문가 단체에 의제추천을 의뢰하고 여론조사를 통한 국민여론 수렴 및 전문위원 회의 등 객관적이고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주제가 선정되도록 하였다.

다만, 제1차 토론회시 추천을 의뢰한 전문가 단체 81개 중 13개 단체만 의제를 추천해와 호응이 낮았고 '국정전반'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경제와 관련된 분야가 우선순위로 선정되는 현상이 나타난 바, 응답자가 특정 계층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추출 방법을 다양화하고 응답자 입장에서 질문내용을 구성하며 조사시간을 저녁시간으로 변경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2차 토론회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70개 단체에 공문으로 의제 추천을 요청하고, 의제분과 전문위원에게도 공문으로 주제추천을 요청하여 5개 단체와 6명의 전문위원으로부터 81건의 의제를 수집하였다.

의제 추천을 요청한 70개 단체 중 5개 단체(한국행정학회, 평화문제연구소, 대한변호사협회, 극동문제연구소, 바른사회시민회의)만이 의제를 추천하는 등 호응이 낮았다.

또한, 주요언론보도 분석을 통한 분야별 이슈 및 쟁점을 정리한 사항과 수집된 주제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여론조사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2007. 7. 12(목)~13(금) 전국의 만 19세이상

성인 남·여 1,0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한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부조직의 효율적 운영 및 개혁방안' 과 '복핵문제와 관련한 대북정책 방향'이 우선순위 주제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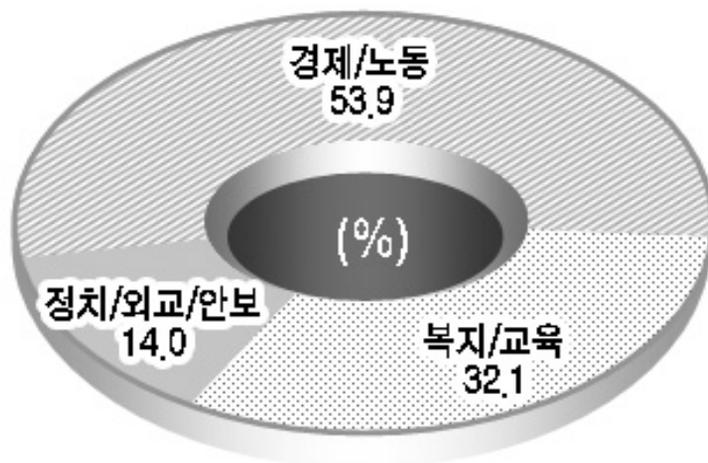
2차례의 정당정책토론회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만 19세이상 유권자 1,000명(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pm 3.1\%p$)을 대상으로 (주)윌드리서치에 의뢰하여 실시한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의제선정을 위한 여론조사의 경우 토론분야 선호도에 있어서 유권자들의 과반수이상(53.9%)은 정당정책토론회에서 "경제·노동" 분야를 의제로 주로 다루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복지·교육" 분야를 희망하는 비율이 32.1%로 높게 나타난 반면, "정치·외교·안보"는 14.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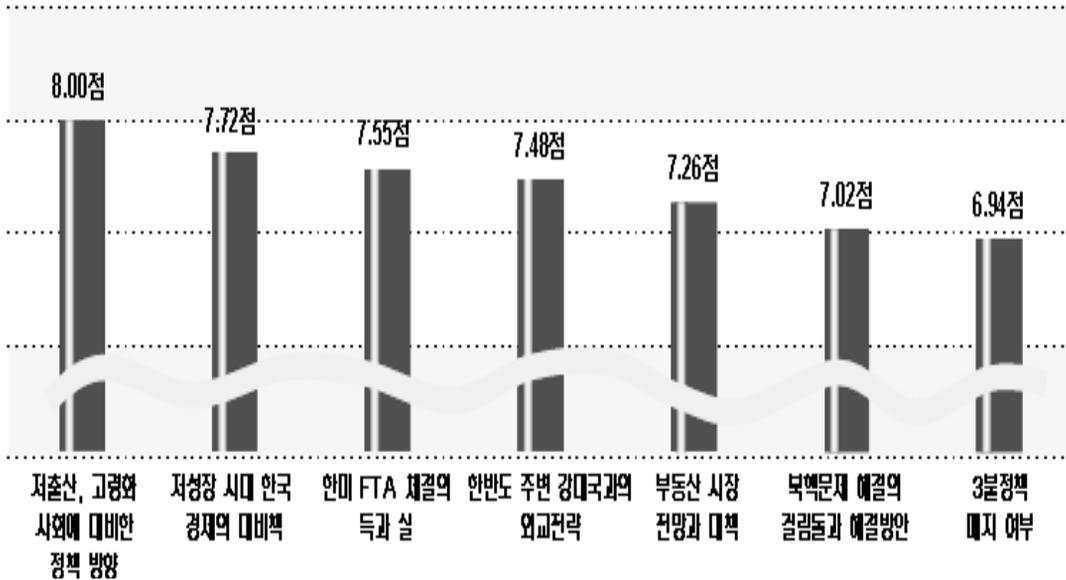
[그림 1-1] 토론분야 선호도 조사 결과

(단위 : %)



분야별 현안 중요도에 있어서 유권자들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정책 방향”에 대한 중요도가 8.0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저성장 시대 한국경제의 대비책”(7.72점), “한미 FTA 체결의 득과 실”(7.55점), “한반도 주변 강대국과의 외교 전략”(7.48점)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그림 1-2]

[그림 1-2] 토론분야별 현안 중요도 조사 결과



현안별 세부 의제는 “저성장 시대 한국경제의 대비책” 현안의 세부 의제인 ‘청년실업문제 해소 방안’(8.63점), ‘공공요금 인상 및 세부담증가에 따른 서민경제 안정화 대책’(8.43점)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요도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정책 방향”의 세부 의제인 ‘육아 노인복지 대책’(8.32점), ‘보육·의료 대책’(8.16점) 등이 높게 나타났다.[표 2-7]

종합적으로 의제분야별로는 선 경제회복 후 정치개혁에 대한 유권자의 희망이 폭넓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7] 토론분야별 세부 의제 중요도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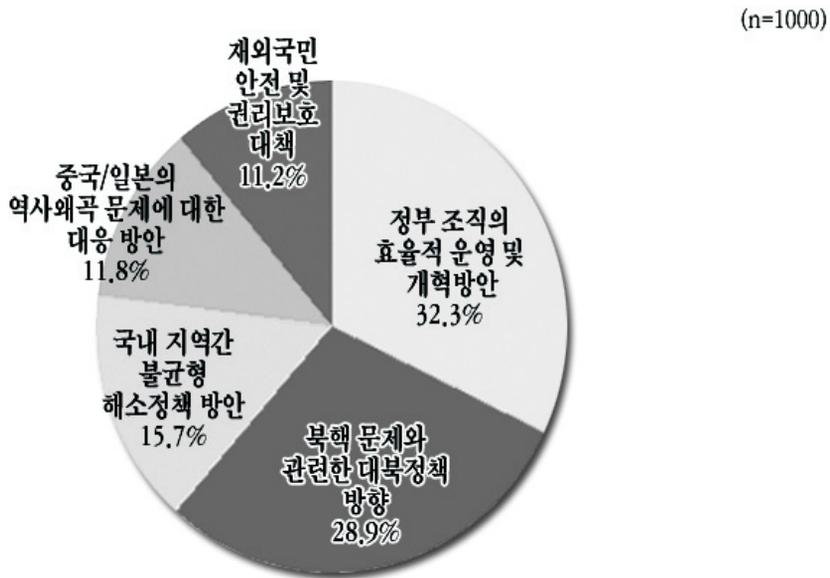
(단위: 점)

주 제	주제별 세부 의제	중요도
한반도주변 강대국과의 외교 전략	1.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따른 한반도 안보문제	7.64
	2. 중국 동북공정사업 추진에 따른 역사인식	7.36
	3. 일본 정치인의 역사인식	7.27
북핵문제 해결의 걸림돌과 해결방안	1.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해결	7.08
	2. 북핵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 수준	6.91
	3.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에 대한 영향	6.80
저성장 시대 한국경제의 대처방안	1. 청년실업문제 해소 방안	8.63
	2. 공공요금 인상 및 세부담증가에 따른 서민경제 안정화 대책	8.43
	3. 중·일경제성장에 대응한 한국경제 활로	7.81
한미 FTA 체결의 득과 실	1. 피해 분야에 대한 대책	7.81
	2. 한미 FTA 국회비준 전망	7.53
	3. 협상분야별 국제 경쟁력 강화 방안	7.53
부동산 시장 전망과 대책	1. 아파트 분양가 인하정책의 실효성	7.83
	2. 부동산보유세 강화를 통한 집값 안정화에 대한 의견	7.82
	3. 분양가 상한제의 민간 확대에 대한 의견	7.63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정책 방향	1.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육아·노인복지 대책	8.32
	2.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보육·의료 대책	8.16
	3.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노동시장 전망 및 대책	8.03
3불정책 폐지 여부	1. 대학 자율성과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한 의견	7.31
	2. 본고사 도입에 대한 의견	7.25
	3. 고교등급제 실시에 대한 견해	7.21
한반도주변 강대국과의 외교 전략	1.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따른 한반도 안보문제	7.64
	2. 중국 동북공정사업 추진에 따른 역사인식	7.36
	3. 일본 정치인의 역사인식	7.27
북핵문제 해결의 걸림돌과 해결방안	1.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해결	7.08
	2. 북핵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 수준	6.91
	3.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에 대한 영향	6.80

②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3.1%p)을 대상으로 (주)동서리서치에 의뢰하여 정치·외교·안보 분야의 중요 정책 현안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한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의제선정 여론조사의 경우, 정치·외교·안보 분야의 정책 우선순위로는 ‘정부조직의 효율적 운영 및 개혁방안’(32.2%), ‘북핵 문제와 관련한 대북정책 방향’(28.9%), ‘국내 지역간 불균형 해소정책 방안’(15.7%), ‘중국/일본의 역사왜곡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11.8%), ‘재외국민 안전 및 권리보호 대책’(11.2%)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1-3]

[그림 1-3] 분야별 정책 우선순위 조사결과



이러한 조사결과로 유권자들은 역사왜곡 문제는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정부조직 및 대북정책 방향은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의 경우,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1주제로는 당시 주요 관심현안인 「한미 FTA 체결의 득과 실」을 채택하였으며 제2주제는 여론조사결과 1순위인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정책 방향」으로 채택하였다.

질문사항에 관하여는 전문위원이 질문사항을 사전에 작성한 후 회의에 참석하도록 안내하여 효율적인 회의가 되도록 운영하였고, 사회자도 질문 작성에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여 사무국에서 미처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을 수정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두는 등 신중하게 업무를 추진하였다.

다만, 전체 위원회의에서 주제의 범위가 확대되어 이에 따른 질문의 난이도 조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정책자료를 제출한 정당이 극히 소수에 그쳐 질문 작성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의 경우, 제1주제는 주제의 시의성 및 중대성을 고려하여 “북핵문제와 대북정책 방향”으로 선정하였으며 제2주제는 여론조사 우선순위 1위인 “정부조직의 효율적 운영 및 개혁방안”으로 하되, 제목을 수정하여 “바람직한 정부조직과 운영방안”으로 선정하였다.

특히, 토론회 개최 10일전에 주제가 선정되어 아프가니스탄 피랍사건이 큰 이슈로 떠올랐으나 시기적으로 토론주제로 선정하기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었고, 다만 국민적 관심도를 고려하여 질문내용에 부분적으로 반영하였다. 질문작성에는 사회자가 참여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향후 토론회에서도 적극적인 사회자의 참여를 권유할 필요가 있었다.

한편, 그룹질문은 전문위원회의, 준비소위원회의를 거치면서 양당의 대립되는 쟁점이 약화되어 토론의 쟁점이 부각되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

6) 토론회 개최 홍보

개최 홍보는 위원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팝업 파일과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의제를 추천한 81개 단체에 개최안내 홍보문을 제공하였으며, 중앙선관위를 통하여 e-선거정보제공 대상 5만여 명, 선거연수원을 통하여 교수 등 6천여 명에게 개최안내 자료를 발송하였다.

또한, 중계방송사에서 토론회 진행 중간에 위원회 주관 자막을 표출하였으며, 엔딩 자막을 통하여 위원, 전문위원, 직원 및 의제추천 단체명 등을 표출하였다.

한편, 중앙선관위 공보과를 통하여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토론회 개최 사실이 KBS 1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과 연합뉴스, 중앙·조선·대한매일 인터넷 판에 보도되었으며, 토론회 개최 후에는 KBS 1TV 9시 뉴스와 라디오 뉴스, MBC 라디오 뉴스시간에 북핵문제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중심으로 비중있게 보도되었다.

7) 설명회 개최

운영규정 제10조(대담·토론회의 공표 등)에 의거 토론회 공표후 지체없이 토론회에 참석할 토론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함에 따라 참여정당의 토론준비 일정을 고려하여 개최하였다. 설명회에서는 토론 주제·진행방법, 토론회 진행시 유의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설명하여 토론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안내하는 한편, 소속 정당의 국회 다수 의석 순에 따라 추천순서를 추천하고 그 추천순서에 따라 토론자별 좌석과 발언 순서를 동시에 추천하여 결정하는 방법에 의하였다.

[표 2-8] 설명회 개최현황

구 분	일 시	장 소	비 고
제 1 차	2007. 5. 22(화) 16:00	3층 위원회의실	D-8
제 2 차	2007. 7. 25(수) 15:00	3층 위원회의실	D-8



제1차 토론회의 설명회는 5. 22(화) 관악청사 3층 위원회의실에서 참석승낙서를 제출한 5개 정당의 각 토론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좌석 및 발언순서를 추첨하여 A : 열린우리당, B : 민주당, C : 국민중심당, D : 민주노동당, E : 한나라당으로 결정하고 토론회

당일 일정과 질서유지 등 유의사항을 설명하는 등 토론회 진행에 따른 정당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특히, 제1차 토론회 개최 공고 후 중도개혁통합신당이 토론회 불참을 철회하고 참석 의사를 밝혀와 긴급 위원회의를 개최하고 그 정당 토론자의 좌석과 발언순서를 마지막 순서로 결정하였다.

제2차 토론회의 설명회는 7. 25(수) 위원회의실에서 각 토론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좌석 및 발언순위를 추첨하여 A : 한나라당, B : 민주노동당, C : 중도통합민주당, D : 국민중심당, E : 열린우리당으로 결정하고, 토론회 당일 일정과 질서유지 등 유의사항을 설명하는 등 토론회 진행에 따른 정당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8) 토론회 장소 설비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토론회장은 토론자 6인을 기준으로 하여 아침방송이라는 방송여건을 감안,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하고 토론자의 뒤 배경이 화면상에 동일하게 나타나도록 부드러운 느낌의 배경을 사용하였다.



또한, 스튜디오 및 세트 크기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회자가 전체 토론자들을 마주보는 좌석 배치를 활용하였으며 토론의 역동감을 살리기 위하여 토론자마다 멀티PDP를 활용하는 등 주관 방송사와 협의·설치하였다.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토론회장은 중계주관방송사의 전문 설비업체와 수시로 메일을 주고받으며 세트 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리허설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일정을 맞추어 설비하였다.

토론자 좌석은 중앙에 배치하여 방청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사회자 좌석은 A 토론자의 우측에 배치하여 토론자와 방청객을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무대배경은 다크블루 계열의 천을 사용하여 품격을 높이고 세트 중앙에 위원회명이 표시된 토론회 타이틀을 배치하여 풀샷시 위원회명이 표출되도록 설비하였다.



토론자 분장실과 대기실을 본관 1층에 배치하여 토론자와 위원들이 자연스럽게 담소를 나눌 수 있도록 하고, 위원 모니터실은 스튜디오 바로 옆에 확보하여 만일의 사태에 즉시 대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9) 토론회 진행

제1차 토론회는 스튜디오에 일반인 20명과 선관위 직원 10명을 방청객으로 입장시켜 토론회 중계화면에 입체감을 주는 시도와 함께 상호토론 시에는 화면을 분할하는 등 시청자가 지루하지 않도록 다양하고 역동적인 화면을 구성하였다.

제2차 토론회는 토론회 개최 20분전에 토론자를 스튜디오에 입장시켜 기념촬영을 하고 추첨으로 결정된 좌석에 앉아 마이크를 시험하는 등 리허설을 하였다. 제1차 토론회와 같이 선관위 직원 10명이 포함된 총 30명의 방청객을 전면 플로어에 배치하여 자연스런 토론장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분할샷 등 기법을 활용하여 다양한 화면구성을 시도하였다.

다. 공직선거정책토론회 관리

공직선거정책토론회는 제17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9월, 10월과 11월에 각 1회씩 총 3회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는데 토론회마다 토론분야를 구분하여 심층적인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토론자 및 사회자를 선정하였다. 또한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의 완벽한 준비를 위하여 조기에 공직선거정책토론회의 개최 일시 등을 결정하여 진행하였다. 3차례의 공직선거정책토론회 개최 현황은 [표 2-9]와 같다.

[표 2-9] 공직선거정책토론회 개최현황

구 분	제 1 차	제 2 차	제 3 차
개최일시	2007. 9. 21(금) 10:00~12:00(120분)	2007. 10. 25(목) 10:00~12:00(120분)	2007. 11. 2(금) 23:40~ 11. 3(토) 01:40(120분)
개최장소	KBS TS-3 스튜디오	MBC D 스튜디오	KBS TS-2 스튜디오
토 론 자	정책위의장	원내대표	선대위원장
토론분야	경제·노동/선거	교육·복지/선거	정치·외교/선거
사 회 자	신 울(명지대 교수)	엄길청(경기대 교수)	송재룡(경희대 교수)
중계주관 방 송 사	KBS	MBC	KBS
중계방송	KBS, MBC 동시생중계		

제1차 토론회는 9. 20(목) ~ 9. 30(화)의 개최가능 기간 중 추석 연휴가 포함된 관계로 실질적으로 토론회 개최가 가능한 일수가 극히 한정되어 있었다. 이에 중계방송사와 9. 21(금) 10:00 ~ 12:00 KBS TS-3 스튜디오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중계방송시설 등을 통보받았다. 토론분야는 경제·노동분야 및 대선관련 분야로 정하고 중계방송은 공영방송사(KBS, MBC)가 동시에 생중계하였다.

경제·노동분야의 의제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전문가 조사를 의뢰하여 수집하고 대선관련 분야 의제는 중앙선관위 및 16개 시·도토론회위원회를 통하여 수집하였다.

토론주제는 '일자리, 어떻게 늘릴 것인가?'와 '제17대 대선, 정책선거 실현방안을 듣는다'로 선정되었으며, 사회자의 개별 질문에 토론자간 상호토론하는 형식과 사회자의 공통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사회자는 위원들로부터 추천을 받았으며 추천 결과 3인의 사회 후보자가 동수로 최다 추천을 받아 규정에 따라 명지대 신율 교수를 사회자로 결정하였다.

중계방송 시에는 TV화면 상단에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주관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표기하여 시청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제2차 토론회는 5개 정당의 원내대표를 초청, 10. 25(목) 10:00 ~ 12:00 MBC D스튜디오에서 개최하였다.

토론분야 중 교육·복지분야 의제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전문가 조사를 의뢰하여 수집하고, 대선관련 분야 의제는 중앙선관위 및 구·시·군토론회위원회로부터 추천을 받았다.

토론주제는 교육분야 주제로는 '사교육비 어떻게 줄일 것인가?'로, 대선관련 분야 주제로 '깨끗한 선거와 정치자금'으로 선정하였으며, 제1주제는 사회자 공통질문 후 토론자간 상호토론과 토론자 자유지정 토론의 형식으로, 제2주제는 사회자 공통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사회자는 위원들로부터 추천을 받아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경기대 엄길청 교수를 사회자로 선정하였다. 또한, 중계방송 시에는 화면 분할, 자막 표출 등 다양한 화면을 구성하였으나, 3분할 화면 등 새로운 화면구성을 시도함에 있어 위원회와 사전협의를 없었던 바, 향후 토론회에서는 사전확인 및 구체적 협의가 필요하였다.

제3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는 11. 2(금) 23:40 ~ 11. 3(토) 01:40 KBS TS-2 스튜디오에서 5개 정당의 선거대책위원회위원장을 초청, '바람직한 선거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1개의 주제로 토론하고 KBS·MBC에서 동시 생중계하였다.

진행방식은 기초연설, 사회자 개별질문 후 토론자간 상호토론, 공통질문 및 맺음말의 순서로 진행하였으며, 경희대 송재룡 교수가 사회자로 선정되었다.

TV 화면상에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주관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토론주제 및 질문요지를 표출하고 엔딩 스크롤 시에는 위원, 전문위원 및 사무국(국장, 팀장)의 명단을 표출하였다.

1) 토론자 선정(초청대상 정당)

공직선거정책토론회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개최되는 법정 토론회로서 초청대상 정당의 책임 있는 당직자가 토론자로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며 선거와 관련하여서도 토론을 진행해야 한다는 위원회의 견해에 따라 정하였다.

제1차 토론회는 토론분야가 경제·노동분야인 만큼 5개 정당의 정책책임자인 정책위의장을 초청, 각 정당의 경제·노동 분야의 정강 및 정책을 비교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초청대상 정당을 결정하기 위하여 중앙선관위로부터 정당별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의 득표율을 통보받았고, 국회로부터는 정당별 국회의원 의석수를 통보받아 위원회의에서 각 정당의 정책위

의장으로 결정하였다.

제2차 토론회는 토론분야가 교육·복지인 만큼 각 정당의 원내대표를 초청하여 각 당의 정책을 비교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다.

일부 정당에서 원내대표가 토론하기에는 토론분야가 적절치 않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개최 취지와 토론 진행방법 등을 설명하여 대상 정당의 원내대표가 모두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제3차 토론회는 대통령선거가 임박해 있는 만큼 5개 정당의 대표자를 한자리에 초청하려 하였으나 정치적인 일정 등을 고려하여 각 후보측의 선거대책위원회위원장으로 하였다.

정당의 선거대책위원회위원장을 초청하기로 결정되어 실무 접촉과정에서 일부 정당은 대표자 등 상임 선거대책위원회위원장이 참석하겠다는 의사 표현이 있었으나, 대표 등은 참석하지 아니하고 원내대표 3인이 포함된 각 정당의 선거대책위원회위원장이 참석하였다.

[표 2-10] 참석 토론자 현황

구 분	소 속 정 당	직 위	성 명
제1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대통합민주신당	정 책 위 의 장	김 진 표
	한 나 라 당	정 책 위 의 장	이 한 구
	민 주 노 동 당	정 책 위 의 장	이 용 대
	민 주 당	정 책 위 의 장	이 상 열
	국 민 중 심 당	정 책 위 의 장	김 낙 성

제2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대통합민주신당	원 내 대 표	김 효 석
	한 나 라 당	원 내 대 표	안 상 수
	민 주 노 동 당	원 내 대 표	천 영 세
	민 주 당	원 내 대 표	최 인 기
	국 민 중 심 당	원 내 대 표	정 진 석
제3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대통합민주신당	선거대책위원회위원장	김 근 태
	한 나 라 당	선거대책위원회위원장	안 상 수
	민 주 노 동 당	선거대책위원회위원장	노 회 찬
	민 주 당	선거대책위원회위원장	최 인 기
	국 민 중 심 당	선거대책위원회위원장	정 진 석

2) 소위원회 구성

공직선거정책토론회의 주제 및 진행방식의 작성과 검토를 위하여 정당추천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상임위원을 포함한 방송사 추천 위원 등 총 5명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운영기간은 의결한 날로부터 3차례의 공직선거정책토론회가 종료되는 날까지였으며 공직선거정책토론회의 진행방식 및 주제의 결정, 질문사항 선정에 이르기까지 총 9회의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안전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지는 등 활발하게 운영되었다.

[표 2-11] 준비소위원회 구성 현황

구 성 위 원	운 영 기 간	직 무
상임위원, 김찬태, 이보경, 최항순, 정영환	의결후 ~ 제3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종료시까지	· 진행방식(안) 작성 · 주제(안)작성 · 질문사항(안) 작성

3) 사회자 선정

사회자 선정을 위하여 위원으로부터 추천된 사회 후보자들에 대한 동영상 자료를 보고 진행능력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제1차 토론회 사회자로는 인재 풀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신인을 발굴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위원들의 추천을 가장 많이 받은 신율 명지대 교수가 선정되었으며 제2차 토론회는 방송 진행 경험이 많은 엄길청 경기대 교수가, 제3차 토론회는 위원들의 다수 추천순위에 따라 송재룡 경희대 교수로 선정되었다.

[표2-12] 사회자 선정현황

구 분	토 론 분 야	사 회 자	
		성 명	전 공
제1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경 제 · 노 동 / 선 거	신 율(명지대 교수)	정치학
제2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교 육 · 복 지 / 선 거	엄길청(경기대 교수)	경제학
제3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정 치 · 외 교 / 선 거	송재룡(경희대 교수)	사회학

사회자 선정 후 토론주제와 진행방식에 대하여 안내하였다. 사회자도 각 정당에 대한 질문사항을 제출하고 질문사항 선정을 위한 준비소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

4) 진행방식 결정

공직선거정책토론회의 진행방식은 전형적인 토론 진행방식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방식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반영, 찬스발언 기회 부여 등 보다 자유로운 토론진행방식도 고려하였으나 대통령선거 등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한 토론 진행방식을 작성·활용하였다.

제1차 토론회 진행방식은 토론자인 정책위의장에게 자당의 정책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인 기초연설 형식을 마련하였으며 토론자가 상대 토론자를 자유롭게 지정하여 토론할 수 있는 형식을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경제·노동분야 주제인 '일자리, 어떻게 늘릴 것인가?'는 시청자에게 보다 구체적이며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토론자간 상호토론하는 방식을 채택하였고, 대선 관련 토론주제인 '제17대 대선, 정책선거 실현 방안을 듣는다'는 사회자의 공통 질문에 간명하게 답변하도록 함으로써 각 정당의 입장을 단순하게 비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표 2-13] 제1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토론 주제 및 진행방식

기초 연설	진행 방식	• 김진표/김낙성/이상열/이한구/이용대 토론자(각 1분)
	소요 시간	5분
제1주제	토론 주제	일자리, 어떻게 늘릴 것인가 ?
	진 행 방 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자 질문(30초) ➡ 김낙성 토론자 답변(1분30초) - 이상열/이한구/이용대/김진표 토론자 반론(각 1분) ➡ 김낙성 토론자 재반론(2분) • 사회자 질문(30초) ➡ 이상열 토론자 답변(1분30초) - 이한구/이용대/김진표/김낙성 토론자 반론(각 1분) ➡ 이상열 토론자 재반론(2분) • 사회자 질문(30초) ➡ 이한구 토론자 답변(1분30초) - 이용대/김진표/김낙성/이상열 토론자 반론(각 1분) ➡ 이한구 토론자 재반론(2분) • 사회자 질문(30초) ➡ 이용대 토론자 답변(1분30초) - 김진표/김낙성/이상열/이한구 토론자 반론(각 1분) ➡ 이용대 토론자 재반론(2분) • 사회자 질문(30초) ➡ 김진표 토론자 답변(1분30초) - 김낙성/이상열/이한구/이용대 토론자 반론(각 1분) ➡ 김진표 토론자 재반론(2분) • 이상열 토론자 자유지정 보충질문(1분30초) ➡ 지정토론자 보충답변(1분30초) ➡ 이상열 토론자 반론(1분30초) • 이한구 토론자 자유지정 보충질문(1분30초) ➡ 지정토론자 보충답변(1분30초) ➡ 이한구 토론자 반론(1분30초) • 이용대 토론자 자유지정 보충질문(1분30초) ➡ 지정토론자 보충답변(1분30초) ➡ 이용대 토론자 반론(1분30초) • 김진표 토론자 자유지정 보충질문(1분30초) ➡ 지정토론자 보충답변(1분30초) ➡ 김진표 토론자 반론(1분30초) • 김낙성 토론자 자유지정 보충질문(1분30초) ➡ 지정토론자 보충답변(1분30초) ➡ 김낙성 토론자 반론(1분30초)
	소요 시간	62분30초

제2주제	토론 주제	제17대 대선, 정책선거 실현방안을 듣는다
	진행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자 질문(30초) ➡ 이한구/이용대/김진표/김낙성/이상열 토론자 답변(각 1분30초) • 사회자 질문(30초) ➡ 이용대/김진표/김낙성/이상열/이한구 토론자 답변(각 1분30초) • 사회자 질문(30초) ➡ 김진표/김낙성/이상열/이한구/이용대 토론자 답변(각 1분30초)
	소요 시간	24분
맺음말	진행 방식	• 이용대/김진표/김낙성/이상열/이한구 토론자(각 1분30초)
	소요 시간	7분30초

제2차 토론회 진행방식은 제1차 토론회에 이어 기초연설 형식을 마련하였으며 토론자가 상대 토론자를 자유롭게 지정하여 토론할 수 있는 형식을 다시 도입하였다.

교육분야 주제는 토론자간의 심층적인 토론을 위하여 토론자간 상호토론하는 방식을 채택하였고, 대선 관련 토론주제는 제1차 토론회때와 마찬가지로 사회자의 공통 질문에 간명하게 답변하도록 함으로써 각 정당의 입장을 단순하게 비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다만, 토론회 개최후에 자유지정토론에서 4개 정당의 토론자가 모두 한나라당 토론자를 지정한 것에 대해 편중되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표 2-14] 제2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토론 주제 및 진행방식

기초연설	진행 방식	• 김효석/천영세/정진석/최인기/안상수 토론자(각 1분)
	소요 시간	5분

제2주제	토론 주제	깨끗한 선거와 정치자금
	진행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자 질문(30초) ➡ 최인기/안상수/김효석/천영세/정진석 토론자 답변(각 1분30초) • 사회자 질문(30초) ➡ 안상수/김효석/천영세/정진석/최인기 토론자 답변(각 1분30초) • 사회자 질문(30초) ➡ 김효석/천영세/정진석/최인기/안상수 토론자 답변(각 1분30초)
	소요 시간	24분
맺음말	진행 방식	• 천영세/정진석/최인기/안상수/김효석 (각 1분30초)
	소요 시간	7분30초

제3차 토론회 진행방식은 토론주제가 1개로 선정되어 진행방식도 기초연설, 사회자 개별질문 후 토론자간 상호토론, 사회자 공통질문, 맺음말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토론주제인 “바람직한 선거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에서는 제17대 대통령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개최되는 마지막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인점을 감안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토론자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또한, 공명선거를 다짐하는 시간을 두어 각 정당의 대표자가 이번 선거를 깨끗하게 치러내겠다는 의지를 확인하였다. 특히, 사회자 개별질문은 (대), (통), (령), (선), (거)가 표기된 봉투에 질문지를 무작위로 넣어 봉합한 후, 토론자가 선택하면 그에 해당하는 질문지를 꺼내어 질문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표 2-15] 제3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토론 주제 및 진행방식

기초연설	진행 방식	• 노회찬/김근태/정진석/안상수/최인기 토론자(각 1분)
	소요 시간	5분

제1주제	토론 주제	바람직한 선거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
	진행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자 질문(30초) ➡ 김근태 토론자 답변(1분) - 정진석/안상수 토론자 반론(각 1분30초) ➡ 김근태 토론자 재반론(1분30초) ➡ 정진석/안상수 토론자 반론(각 1분) ➡ 김근태 토론자 재반론(1분) - 최인기/노회찬 토론자 반론(각 1분30초) ➡ 김근태 토론자 재반론(1분30초) ➡ 최인기/노회찬 토론자 반론(각 1분) ➡ 김근태 토론자 재반론(1분) • 사회자 질문(30초) ➡ 정진석 토론자 답변(1분) - 안상수/최인기 토론자 반론(각 1분30초) ➡ 정진석 토론자 재반론(1분30초) ➡ 안상수/최인기 토론자 반론(각 1분) ➡ 정진석 토론자 재반론(1분) - 노회찬/김근태 토론자 반론(각 1분30초) ➡ 정진석 토론자 재반론(1분30초) ➡ 노회찬/김근태 토론자 반론(각 1분) ➡ 정진석 토론자 재반론(1분) • 사회자 질문(30초) ➡ 안상수 토론자 답변(1분) - 최인기/노회찬 토론자 반론(각 1분30초) ➡ 안상수 토론자 재반론(1분30초) ➡ 최인기/노회찬 토론자 반론(각 1분) ➡ 안상수 토론자 재반론(1분) - 김근태/정진석 토론자 반론(각 1분30초) ➡ 안상수 토론자 재반론(1분30초) ➡ 김근태/정진석 토론자 반론(각 1분) ➡ 안상수 토론자 재반론(1분) • 사회자 질문(30초) ➡ 최인기 토론자 답변(1분) - 노회찬/김근태 토론자 반론(각 1분30초) ➡ 최인기 토론자 재반론(1분30초) ➡ 노회찬/김근태 토론자 반론(각 1분) ➡ 최인기 토론자 재반론(1분) - 정진석/안상수 토론자 반론(각 1분30초) ➡ 최인기 토론자 재반론(1분30초) ➡ 정진석/안상수 토론자 반론(각 1분) ➡ 최인기 토론자 재반론(1분) • 사회자 질문(30초) ➡ 노회찬 토론자 답변(1분) - 김근태/정진석 토론자 반론(각 1분30초) ➡ 노회찬 토론자 재반론(1분30초) ➡ 김근태/정진석 토론자 반론(각 1분) ➡ 노회찬 토론자 재반론(1분) - 안상수/최인기 토론자 반론(각 1분30초) ➡ 노회찬 토론자 재반론(1분30초) ➡ 안상수/최인기 토론자 반론(각 1분) ➡ 노회찬 토론자 재반론(1분) ※ ‘사회자 개별질문’은 현장에서 토론자에게 (대), (통), (령), (선), (거) 다섯 글자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 그에 해당하는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함. • 사회자 질문(30초) ➡ 정진석/안상수/최인기/노회찬/김근태 토론자 답변(2분) ※ 공명선거를 다짐하는 시간
	소요 시간	93분

맺음말	진행 방식	· 안상수/최인기/노회찬/김근태/정진석/안상수/최인기 토론자(각 1분)
	소요 시간	5분

5) 주제 · 질문사항 선정

토론주제는 의제분과 전문위원과 준비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체 위원회의에서 최종 확정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3회에 걸쳐 개최되는 것을 고려하여 분야별 심층토론을 유도하기 위해 제1차 토론회는 경제·노동 분야, 제2차 토론회는 교육·복지 분야, 제3차 토론회는 정치·외교 분야로 구분하였으며 각 토론회마다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주제를 두어 각 정당이 선거에 임하는 대책 등 입장을 들어보았다.

먼저, 사회 각계 여론주도층 전문가들에게 여론조사기관의 의제선정을 위한 여론조사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였고 이어 방송토론에 적합하고 공정성·객관성·시의성 및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6개 과(팀)에 의제 추천 협조를 요청하여 제17대 대선관련 분야에서 매 회차에서 다루어야 할 토론주제와 그 주제와 관련하여 정당 공통질문 및 정당별 개별질문을 추천하여 줄 것과 16개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의제 추천 협조를 요청하여 제17대 대선관련 분야에서 각 분임단위별로 매회차에서 다루어야 할 토론주제와 그 주제와 관련하여 정당 공통질문 및 정당별 개별질문을 추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 결과, ‘매니페스토 실천방안’(10) 의제가 추천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인터넷 선거운동의 쟁점’(5), ‘당내경선제도의 개선방안’(5), ‘재외국민 참정권 제도개선방안’(5)이 다음이었으며, ‘제17대 대선 공명선거추진방안’(4), ‘깨끗한 선거를 위한 금품선거 근절 대책’(4),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자질검증 방안’(3) 등의 순이었다.

마지막으로 각 분야별로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통해 정책토론회에 적합한 주제를 선정하였고 정성조사에서 파악된 주요 현안들에 대한 정량조사를 통해 중요도를 측정하여 의제 선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였다.

3차례의 공직선거정책토론회에 앞서 실시하였던 여론조사 결과를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제1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의제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경제·노동분야에 대한 심층면접조사(정성조사) 및 전화면접조사(정량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제 관련 정책 의제로는 ‘한국경제의 중장기적 경쟁력 강화 방안’, ‘경제의 양극화 문제 해소 방안’, ‘7%대의 경제성장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및 발굴 방안’, ‘지속적 성장을 위한 내수활성화 방안’, ‘FTA에 대한 향후 계획 및 피해 대상에 대한 조치’, ‘성장과 분배에 대한 견해’ 등이 추천되었다.

[표 2-16] 제1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조사개요

구분	정성 조사	정량 조사
조사대상	경제·노동 분야의 전문가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등 여론주도층
조사방법	심층면접(Depth Interview)	전화면접조사 및 팩스/이메일 조사
표본수	35명	100명
조사기간	2007년 8월 28일~9월 5일	

고용관련 정책 의제로는 ‘여성, 노인 등 취약 계층의 경제활동 제고 방안’,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 해소 방안’, ‘고용 창출 및 고용 안정 방안’, ‘비정규직 법안 개정 및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방안’이 추천되었다.

기업 관련 정책 의제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방안’,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 ‘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이 추천되었으며, 부동산 관련 정책 의제로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 및 개선 대안’, ‘부동산 세제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 ‘집값 안정을 위한 항구적인 방안’이 추천되었다.

경제·노동 분야의 세부 현안에 대한 중요도는 “한국 경제의 중장기적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중요도가 8.2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 및 발굴 방안”(7.75점), “고용 창출 및 고용 안정 방안”(7.55점), “지속적 성장을 위한 내수활성화 방안”(7.24점), “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7.22점)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17] 경제·노동 분야의 세부 현안 중요도

(단위 : %)

분 야	주 제	중요도 (10점척도)
경제 관련	한국경제의 중장기적 경쟁력 강화 방안	8.23
	경제의 양극화 문제 해소 방안	6.90
	7%대의 경제성장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5.95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및 발굴 방안	7.75
	지속적 성장을 위한 내수활성화 방안	7.24
	FTA에 대한 향후 계획 및 피해 대상에 대한 조치	6.87
	성장과 분배에 대한 견해	6.37
	금산분리 정책에 대한 견해	6.45
고용 관련	여성, 노인 등 취약 계층의 경제활동 제고 방안	6.58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 해소 방안	6.68
	고용 창출 및 고용안정 방안	7.50
	비정규직 법안 개정 및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방안	6.55
기업 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방안	6.58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	6.87
	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	7.22
부동산 관련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 및 개선 대안	6.54
	부동산 세제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	7.05
	집값 안정을 위한 항구적인 방안	6.85

종합적으로 의제분야별로는 경제 성장과 관련된 현안을 핵심의제로 설정하여 “한국 경제의 중장기적 경쟁력 강화 방안”과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및 발굴 방안”을 우선적으로 질문하고, 민생과 관련이 있는 “고용 창출 및 고용안정 방안”과 안정적 성장을 위한 “지속적 성장을 위한 내수활성화 방안”과 “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 등의 질문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② 제2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의제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교육·복지분야에 대한 심층면접조사(정성조사) 및 전화면접조사(정량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육 분야 정책 현안으로는 ‘3불정책에 대한 의견’,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방안’, ‘대학입시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및 지원 대책’, ‘사교육비 경감 대책 및 사교육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영어교육관련 각종 정책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방안’, ‘조기 유학에 대한 대책 및 교육개방에 대한 대책 방안’, ‘특수목적고에 대한 정책 방향’ 등이 추천되었다.

[표 2-18] 제2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조사개요

구 분	정성조사	정량조사
조사대상	교육·복지 분야의 전문가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등 여론주도층
조사방법	심층면접(Depth Interview)	전화면접조사 및 팩스/이메일 조사
표 본 수	32명	100명
조사기간	2007년 9월 19일~10월 10일	

복지 분야 정책 현안으로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노인 복지제도’, ‘건강보험의 재정적자 해소 방안’, ‘국민연금 개선방안’,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성 문제 해결 방안’, ‘식품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보육 및 아동복지 정책 개선방안’,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 방안’, ‘소외계층 및 저소득층 복지 대책’ 등이

추천되었다.

교육·복지 분야의 세부 현안에 대한 중요도를 살펴보면,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노인 복지제도”가 8.46점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소외계층 및 저소득층 복지 대책안”(7.96점),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대책”(7.90점), “학생과 학부모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공교육 활성화 방안”(7.83점), “대학입시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7.82점)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19] 교육·복지 분야의 세부 현안 중요도

(단위 : %)

분 야	주 제	중요도 (10점척도)
교 육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대책	7.90
	학생과 학부모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공교육 활성화 방안	7.83
	대학입시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	7.82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방안	7.20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및 지원 대책	7.13
	사교육비 경감 대책 및 사교육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7.12
	대학의 자율권 인정범위	6.99
	3불정책에 대한 의견	6.94
	영어교육관련 각종 정책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방안	6.29
	학교내 각종 비리 척결을 위한 근본적 해결 방안	6.27
	특수목적고에 대한 정책 방향	6.12
	조기 유학에 대한 대책 및 교육개방에 대한 대책 방안	5.56
복 지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노인 복지제도	8.46
	소외계층 및 저소득층 복지 대책	7.96
	보육 및 아동복지 정책 개선 방안	7.53
	국민연금 개선 방안	7.34
	양육비 및 교육비 상승에 대한 개선 방안	7.24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성 문제 해결 방안	7.24
	건강보험의 재정적자 해소 방안	7.10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 방안	7.05
	식품안전관리 체계 개선 방안	6.75

종합적으로 의제분야별로는 복지와 관련된 현안을 핵심의제로 설정하여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노인 복지제도”를 우선적으로 질문하고, “소외계층 및 저소득층 복지 대책”과 더불어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대책”과 같은 재분배 정책에 대해 토론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공교육 활성화 방안”과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및 지원 대책” 등의 교육관련 질문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③ 제3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의제 관련 정치·외교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주)월드리서치에 의뢰하여 정치·외교분야에 대한 심층면접조사(정성조사) 및 전화면접조사(정량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치·행정 관련 정책 의제로는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정책 방향’, ‘지방자치제도의 현실과 개선 방향’,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정치개혁 방안’, ‘정당정치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이 추천되었다.

[표 2-20] 제3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조사개요

구분	정성조사	정량조사
조사대상	정치·외교 분야의 전문가	정치·외교 분야의 전문가
조사방법	심층면접(Depth Interview)	전화면접조사 및 팩스/이메일 조사
표본수	31명	102명
조사기간	2007년 10월 2일 ~ 10월 17일	

외교·통상 분야 중 “주변 4개국에 대한 외교 정책 방향”에 대한 중요도가 8.3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외교·통상 분야 중 “한미동맹에 대한 향후 전망 및 정책 방향”(8.15점), 통일·안보 분야 중 “북핵문제관련 6자회담의 성과와 전망”(8.02점), 외교·통상 분야 중 “에너지·자원 확보 전략”(8.01점)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치·행정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도

를 보였으며, 그 중에서는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정책 방향”(7.44 점)이 가장 높은 중요도를 나타냈다.

[표 2-21] 정치·외교 분야의 세부 현안 중요도

분 야	주 제	중요도 (10점척도)
정치·행정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정책 방향	7.44
	지방자치제도의 현실과 개선 방향	7.09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정치개혁 방안	6.79
	정당정치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6.21
	재외국민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	6.09
	대통령 임기, 내각제 등 개헌에 대한 입장	5.80
	시민사회운동에 대한 견해 및 바람직한 전개 방향	5.69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견해	5.53
외교·통상	주변 4개국에 대한 외교 정책 방향	8.32
	한미 동맹에 대한 향후 전망 및 정책 방향	8.15
	에너지·자원 확보 전략	8.01
	FTA와 관련한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7.96
	통상정책 방향	7.83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대응 방안	7.09
	동북공정 및 독도문제 해결 방안	6.59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정책 방향	6.16
통일·안보	북핵문제관련 6자회담의 성과와 전망	8.02
	남북정상회담의 의의와 향후 과제	7.77
	대북 경제협력 정책에 대한 견해	7.63
	평화통일을 위한 여건 조성 방안	7.50
	국가 안보정책 방향	7.47
	주한미군 문제 해결 방안	6.63
	한국군 해외 파병에 대한 평가 및 향후 방안	6.26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정책 방향	6.13

의제분야별로는 외교·통상 현안을 핵심의제로 설정하여 “주변 4개국에 대한 외교 정책 방향”을 우선적으로 질문하고, “한미 동맹에 대한 향후 전망 및 정책

방향”과 더불어 “북핵문제 관련 6자회담의 성과와 전망”과 같은 안보와 관련된 정책에 대해 토론하고, “에너지·자원 확보 전략”과 같은 질문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앞선 결과를 바탕으로 제1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의 주제로는 “일자리, 어떻게 늘릴 것인가?”로 선정되었다. 또한 대선관련 주제로는 “매니페스토 실천방안”이 많이 추천되었으나 대선이 인접한 추후 공직선거정책토론회의 주제로 채택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어 ‘각 정당의 공명선거 실천방안’이나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등 근절 대책’ 등의 논점이 있는 “제17대 대선, 정책선거 실현방안을 듣는다”로 최종 선정되었다.

제2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의 주제로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 및 사교육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국민의 관심도가 가장 높다고 판단하여 “사교육비 어떻게 줄일 것인가?”로 수정하여 결정하였다. 대선관련 토론주제는 “깨끗한 선거와 정치자금”을 선정하였다.

제3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의 주제는 각 정당의 정책선거 방향에 관한 토론을 통하여 공명선거 실천의지를 확인하고 각 정당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대상으로 마지막으로 개최되는 공직선거토론회를 통하여 이번 대선에서의 공명선거 관리대책을 듣고 토론하는 기회가 필요하다는 판단과 금품선거의 추방, 흑색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차단 등의 세부 대책 등에 관한 논의의 초점이 있는 “바람직한 선거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를 최종 선정하였다.

한편, 질문사항은 여론조사 등 자료를 근거로 전문위원이 질문사항을 검토하고 소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하였으며, 사회자의 의견을 반영하였다. 작성된 질문사항은 토론회 개최일 전일에 전체 위원회의에서 의결로 결정하였다.

제1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의 주제별 질문요지는 [표2-22]와 같다

[표 2-22] 제1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질문요지

토론주제	질문요지
일자리, 어떻게 늘릴 것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실업 대책(대통합민주신당) -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국민중심당) -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 해소(민주당) -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인적자원활용 전략(한나라당) - 비정규직 문제와 노동시장의 유연성(민주노동당)
제17대 대선, 정책선거 실현방안을 듣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선거 실현방안 - 재외국민 투표권의 범위와 시행시기에 대하여 - 사이버 선거운동에 대한 입장

제2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의 주제별 질문요지는 [표2-23]와 같다.

[표 2-23] 제2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질문요지

토론주제	질문요지
사교육비 어떻게 줄일 것인가?	- 사교육비 어떻게 줄일 것인가?
깨끗한 선거와 정치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법적인 선거비용 조달방안 - 선거비용 지출의 투명성 확보방안 - 정치자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3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의 주제별 질문요지는 [표 2-24]와 같다.

[표 2-24] 제3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질문요지

토론주제	질문요지
바람직한 선거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품선거 근절방안 - 바람직한 후보자 검증방안 - 지역주의 선거 타파방안 -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실천방안 - 공무원의 선거개입 차단방안 - 각 정당의 선거전략

7) 설명회 개최

운영규정 제10조(대담·토론회의 공표 등)에 의거 토론회 공표후 지체없이 토론회에 참석할 토론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설명회에는 토론자 대리인 등이 참석하여 토론 주제·진행방법, 토론회 진행시 유의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안내하고 토론자의 좌석 및 발언 순서를 추첨하였다.

[표 2-25] 설명회 개최현황

구 분	일 시	장 소	비 고
제 1 차	2007. 9. 13(목) 15:00	3층 위원회의실	D-8
제 2 차	2007. 10. 18(목) 17:00	3층 위원회의실	D-7
제 3 차	2007. 10. 29(월) 16:30	3층 위원회의실	D-4

토론자의 좌석 및 발언순서 추첨은 소속 정당의 국회 다수 의석 순에 따라 추첨순서를 추첨하고 그 추첨순서에 따라 토론자별 좌석과 발언 순서를 동시에 추첨하여 결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제1차 토론회의 설명회는 2007. 9. 13(목) 각 토론자의 대리인 5인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제1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의 토론자 좌석 및 발언순서를 추천하여 A:대통합민주신당, B:국민중심당, C:민주당, D:한나라당, E:민주노동당으로 결정하였다. 발언순서 결정에 따라 토론진행방식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토론회 당일 일정과 유의사항 및 제2·3차 토론회 관련 사항(개최일시와 토론자)을 안내하였다.

제2차 토론회의 설명회는 2007. 10. 18(목) 각 토론자의 대리인 5인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제2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의 토론자 좌석 및 발언순서를 추천하여 A:대통합민주신당, B:민주노동당, C:국민중심당, D:민주당, E:한나라당으로 결정하였다.



추천후 토론진행방식 등을 설명하고 특정 후보 공약에 대한 언급 자제 등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취지에 부합하는 토론회 진행에 협조를 당부하였다



제3차 토론회의 설명회는 2007. 10. 29(월) 각 토론자의 대리인 5인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토론회에서 특정 후보자를 거명하거나 공약에 대한 언급 자제를 요청하고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취지에 부합하는 토론회가 되도록 협조를 당부하였다. 제3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의 토론자 좌석 및 발언순서를 추천하여 A:민주노동당, B:대통합민주신당, C:국민중심당, D:한나라당, E:민주당으로 결정하였다.

8) 토론회 개최 홍보

위원회, 중앙선관위 및 각 시·도선관위 홈페이지에 팝업 파일을 게시하여 네티즌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중앙선관위 회원 52,000여명에게 이메일 발송 및 의제추천 대상 70여개 단체·협회 등에도 개최안내문을 송부하여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토론회 개최를 공표한 즉시 중앙선관위 공보판을 통하여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제공하였다.

9) 토론회 장소 설비

토론회 장소설비 안에 대하여 방송사측과 수시로 수정 의견을 메일로 교환하는 등 위원회 주관 토론회 개최 장소가 품격 있게 설비 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협의하였다.



제1차 토론회의 토론자 좌석은 중앙에 배치하여 방청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토론자 뒷면에 '공직선거정책토론회' 타이틀, 토론자와 방청객 사이에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주관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타이틀을 배치하여 풀샷시 자연스럽게 타이틀이 방송될 수 있도록 하였다.

였다.

또한, 30명의 방청객을 토론자 정면 플로어에 배치하여 토론자가 국민에게 정당의 정강·정책을 제시하는 느낌을 갖도록 하고, 토론자 발언에 대한 방청객의 자연스런 반응이 즉시 토론자에게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토론회에 생동감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제2차 토론회는 세트 배경을 다크블루 계열의 천으로 설비하여 토론자가 돋보이도록 배려하였고, 타이머 4개와 리얼타임 시계 1개를 설치하여 발언시간을 확

인하고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토론자 좌석 후면에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전면에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주관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타이틀을 배치하여 위원회 주관 토론회임을 명시하였으며, 제2차 토론회에서는 방청객을 두지 아니하였다.



제3차 토론회는 세트 배경을 다크블루 계열의 천으로 준비하고 사회자 좌석을 화면상 토론자의 좌측에 배치하였으며 타이머 3개와 리얼타임 시계 1개를 설치하였다.

또한, 제2차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토론자 좌석 후면에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전면에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주관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타이틀을 배치하여 위원회 주관 토론회임을 시청자에게 알렸다.

10) 토론회 진행

각 토론회에서는 토론회 개최 20분전에 토론자를 스튜디오에 입장시켜 리허설을 통해 생방송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금년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부터 도입한 방청객 제도를 유지하여 선관위 직원 10명이 포함된 총 30명의 방청객을 전면 플로어에 배치하여 딱딱한 토론장 분위기를 다소 부드럽게 하고 다양한 화면 구성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사회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프롬프트를 활용하였고 타이머를 통해 토론자가 발언시간을 준수하도록 하였으며 정당정책토론회에서 사용하였던 10초전 및 시간종료 피켓은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각 주제토론 시작 전에 지미집 카메라 스윙을 통한 폴샷과 함께 토론 주제를

화면에 표출함으로써 토론자에게는 토론 준비의 시간을 주고 시청자에게는 토론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토론주제, 개별질문 및 공통질문 요지를 자막으로 화면에 표출하여 시청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였고, 상호토론 때는 분할 화면을 통해 화면에 역동감과 긴장감을 주고 폴샷 등의 기법으로 다양한 화면을 구성하였다. 또한, TV화면 우측 상단에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주관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표출하였고, 엔딩 스크롤 시에는 위원, 전문위원 및 사무국장의 명단을 자막으로 표출하였다.

사회자가 특정 대선 후보에 대한 발언을 자제하도록 요청하여 선거와 관련한 특정 후보 비방이나 선거관련 발언은 없었다.

제1차 토론회에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특정 후보자의 성명을 거명하지 않도록 주지시켰으며, 토론회 타이틀, 주관, 주제, 정당명 및 토론자 성명 등을 수시로 자막 표출하고, 엔딩 스크롤 시에는 위원, 전문위원 및 사무국(국장, 팀장)의 명단을 자막으로 표출하였으며,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을 실시하였다.

한편, 토론회의 화면 구성은 2분할, 3분할 등 다양하게 하여 시청자의 입장에서는 지루하지 않은 재미있는 화면이 구성되었으나, 3분할 화면 등 새로운 화면 구성 시도에 대해 주관 방송사 MBC와 위원회간 사전 협의가 없었던 점은 아쉬웠다.

제2·3차 토론회에서는 TV화면상에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주관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토론주제 및 질문요지를 진행 중에 자막표출하고 위원, 전문위원 및 사무국(국장, 팀장)의 명단을 엔딩 스크롤시 표출하였다.

제 2 절 제17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관리

1. 개 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의 규정에 의거 제17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총 3회의 후보자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후보자토론회도 1회 개최하였다.

[표 2-26] 개최횟수 및 초청대상자

주 관	종 류	선 거 별	개 최 시 기	횟 수	근 거 법 률
중 앙	후 보 자 초 청 대 담 · 토 론 회	대 통 령 선 거	선 거 운 동 기 간 중	3회 이상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토론회 개최

2. 주요 추진실적

가. 후보자토론회 관리

1) 위원 정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7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의 차질없는 주관·진행을 위하여 결원 위원을 위촉하는 등 위원 정비를 하였다.

2) 소위원회 구성·운영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규칙 제17조(소위원회)의 규정에 의거 토론주제 및 진행방식 검토과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정당 추천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준비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다.

[표 2-27] 소위원회 구성 현황

구 분	구 성 위 원	운 영 기 간	직 무
제17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상임위원, 김찬태, 성경섭, 최항순, 정영환	의결후 ~ 제3차 후보자토론회 종료시까지	· 토론진행방식(안)의 작성 · 토론회 주제(안)작성 · 토론 질문사항(안) 작성

준비소위원회는 상임위원, 공영방송사 추천 위원 각 1인, 학계·법조계 추천 각 1인 등 5인으로 구성되어 후보자토론회의 토론주제 및 진행방식 등에 관한 집중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

3) 후보자토론회 개황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위원회가 창설되고 처음으로 주관한 제17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를 별다른 대과없이 개최하였다. 사무국에서는 후보자토론회를 완벽하게 준비·관리하기 위하여 후보자토론회 관리 기본계획을 작성하였고 관리단 체제로 전환하여 토론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표 2-28]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 개최 현황

구 분	제 1 차	제 2 차	제 3 차
개 최 일 시	2007. 12. 6(목) 20:00 ~ 22:00	2007. 12. 11(화) 20:00 ~ 22:00	2007. 12. 16(일) 20:00 ~ 22:00
개 최 장 소	KBS TS-4 스튜디오	MBC D 스튜디오	MBC D 스튜디오
토 론 분 야	정치·외교· 통일·안보	사회·교육· 문화·여성	경제·노동· 복지·과학
주관방송사	KBS	MBC	MBC
중 계 방 송	KBS, MBC 동시생중계		
사 회 자	송지현(방송인)		

후 보 자	기호 1번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기호 2번	한 나 라 당	이명박
	기호 3번	민 주 노 동 당	권영길
	기호 4번	민 주 당	이인제
	기호 6번	창 조 한 국 당	문국현
	기호12번	무 소 속	이회창

후보자 등록 후 즉시 토론회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여 토론규정과 진행절차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화면구성 및 후보자의 위법 발언시 등 대응요령’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다.

또한, 후보자 안전과 스튜디오 내 질서유지를 위하여 후보자별 차량은 2대, 인원은 5명으로 방송국 출입을 제한하고 방송사 안전관리팀 및 경찰경호팀과 긴밀하게 대처하였다. 언론사에는 별도의 프레스 출입증을 발급하는 한편 방송사 카메라 및 신문사 사진기자 각 1인은 토론 중에도 스튜디오내 촬영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등 언론사에 취재편의를 제공하였다.

SBS의 토론회 중계 요청과 관련하여 KBS와 MBC에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는 등 노력하였으나 중계하지 못하였던 것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특히, 토론회 내용과 관련하여 참석 후보자의 수가 많아 심층적인 토론이 되지 못하였다는 언론의 평가도 있으나 유일한 정책경쟁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 받았다. 한편으로는 비초청대상 토론회가 부재자투표날에 개최되어 후보자 등으로부터 불만이 제기되는 등 향후 연구·보완해야할 과제도 남겼다.

[표 2-29] 비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 개최 현황

구 분	비초청	비 고
개 최 일 시	2007. 12. 13(목) 23:00 ~ 12. 14(금) 01:00	
개 최 장 소	KBS TS-2 스튜디오	

후 보 자	기호 7번 참 주 인 연 합 정근모 기호 8번 경 제 공 화 당 허경영 기호 9번 새시대참사람연합 전 관 기호 10번 한 국 사 회 당 금 민	
토 론 분 야	초청대상토론회의 전분야	
사 회 자	송지현(방송인)	
주관방송사	KBS	
중 계 방 송	KBS, MBC 동시생중계	

4) 개최일시·장소 등 결정

지난 제15·16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개최상황과 제17대 후보자토론회 준비에 따른 절차 등을 고려하여 초청대상은 3회, 비초청대상은 1회의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일정안을 확정하고 공영방송사에 중계방송시설명 등을 조기에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양 공영방송사는 협의를 통해 위원회에 중계방송시설명 등을 통보하여 왔고 이에 제19차 위원회의(11. 9)를 개최하여 개최일시·장소, 중계방송사, 중계주관방송사, 방송방법, 토론분야 및 토론방법 등을 조기에 결정하였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계방송사 및 예비후보자에게 안내하고 중앙선관위 공보과를 통하여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제공하였다.

토론회 개최 장소로는 외부 시설을 이용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으나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임을 감안, 공영방송사의 협조를 얻어 각 중계주관방송사의 스튜디오를 이용하였다.

5) 여론조사 공표 결과 수집

‘선거방송토론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언론기관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방송위원회(방송)와 문화관광부(신문)에 현황 통보를 요청하고, 통

보된 언론기관 현황에 따라 '여론조사 공표자료 수집계획'을 수립하여 중앙 및 시·도위원회 별로 여론조사 수집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였다.

여론조사 결과는 KBS, MBC, SBS, MBN, YTN 등 방송 5개사는 중앙토론위원회가, 전국을 보급 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61개 법인은 발행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위원회가 담당하여 10. 28. ~ 11. 26. 까지 후보자 지지율에 관한 여론조사 공표결과를 수집하였다.

위 기간 중 여론조사는 총 47회 공표되었으며 방송은 16회로 5개 방송사가 1회 이상, 신문은 36회로 서울에 소재하는 중앙일간지 11개사만 공표하였다.

다만, 언론사에 여론조사 결과의 통보를 요청하였으나 관련 자료의 홈페이지 공개 등을 이유로 통보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 등 비협조적이었으며, 기간 중 인터넷에 의한 여론조사는 신뢰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어 지지율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6) 토론회 초청대상 선정

2007년 11월 26일 후보등록 마감결과 제17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는 정동영, 이명박, 권영길, 이인제, 심대평, 문국현, 정근모, 허경영, 전관, 금민, 이수성, 이회창 등 모두 12명이 등록을 마쳤다. 이에,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의 규정에 따른 후보자토론회에 초청할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 ①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경우에는 10. 26. 현재로 국회의장의 「교섭단체(정당)별 국회의석수 등 통지」에 근거하여 대통합민주신당(140석) 정동영 후보, 한나라당(129석) 이명박 후보, 민주노동당(9석) 권영길 후보, 민주당(7석) 이인제 후보, 국민중심당(5석) 심대평 후보를 선정하였다.
- ② '직전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통보한 「정당별 직전 선거의 득표율 통보」에 근거하여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민주당 이인제 후보를 선정하였다.

- ③ ‘언론기관이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의 경우에는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무소속 이회창 후보를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 법 제82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토론회 참석대상은 정동영, 이명박, 권영길, 이인제, 심대평, 문국현, 이회창 후보자 등 7명으로, 제5항의 규정에 따른 토론회 참석대상은 정근모, 허경영, 전관, 금민, 이수성 후보자 등 5명이 선정되었다. 그러나, 이수성 후보(11. 29), 심대평 후보(12. 4)는 각각 토론회 참석포기서를 제출하여 초청대상 토론은 6명, 비초청대상 토론은 4명의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7) 토론회 관계자 회의 개최

후보자 측 토론 관계자에게 토론회 규정 및 진행절차를 정확하게 안내하고, 후보자에게 안내할 참석승낙서·사회자에 대한 의견 제출 및 후보자 준수사항이나 위임장 제출 등 각종 공문의 일괄시행을 위하여 토론회 관계자 회의 개최계획을 수립·시행하였다.



토론회 관계자 회의는 후보자등록 다음날(11.27)에 11명의 후보자 측 관계자 23명(이수성 후보자 측 불참)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으며 토론회 진행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오해와 시비사항을 예방하고 질의응답을 통하여 의문사항을 해소시켜 주는 등의 계기가 되었다.

8) 사회자 선정

위원회는 토론회 마다 사회자 1인을 둔다는 규정에 따라 위원마다 개최일전 20일에 해당하는 11. 16.까지 3인 이내에서 사회자를 추천받았다.

추천 결과 초청1차는 송지헌, 신율, 엄길청, 염재호 등 8명, 초청2차는 송지헌, 엄길청, 염재호, 신율 등 9명, 초청3차는 송지헌, 엄길청, 염재호, 신율, 손석희, 박선영, 안인해, 이정희, 정관용 등 9명, 비초청은 송지헌, 신율, 엄길청, 정관용 등 8명의 사회자가 추천되었다.



이에 후보자에게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여 후보자로부터 가장 많은 찬성을 받은 송지헌을 초청대상 1·2·3차 사회자로 선정하였고, 비초청대상 토론회는 가장 많은 찬성을 받은 동순위 자가 송지헌, 정관용 등 4명이 되어 위원장이 송지헌을 사회자로 선정하였다. 이에 제17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는 송지헌이 모든 토론회를 맡아 무난하게 진행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9) 토론주제 선정

주제는 후보자토론회 개최 기본계획에 따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사회·교육·문화·여성 분야”, “경제·노동·복지·과학 분야”로 구분하여 수집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 등 184개 단체에 의제추천을 요청하여 대한변호사협회 등 20개 단체가 추천하고, 6명의 전문위원이 의제를 추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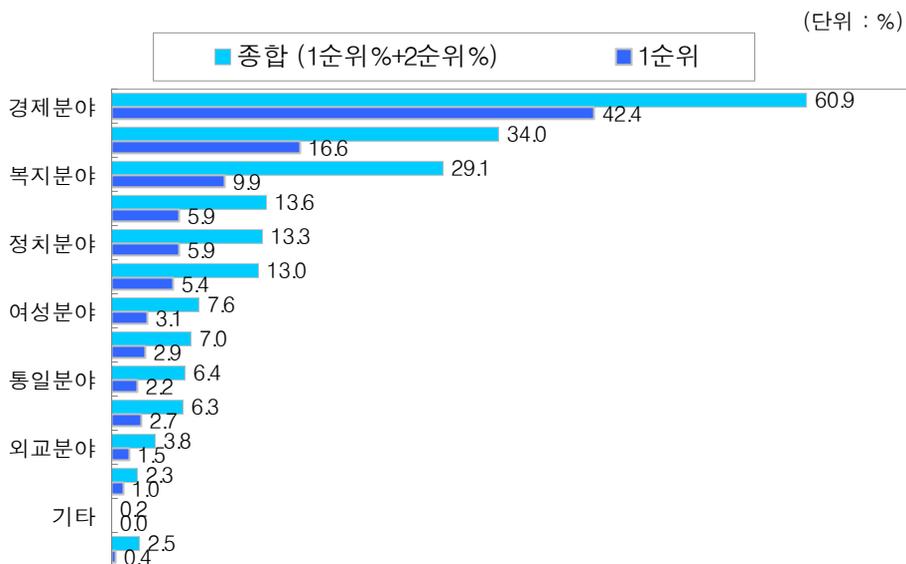
또한, 의제개발을 위해 한국대통령학연구소에 의제개발 연구용역을 의뢰·실시하고, 7명의 예비후보자에게 정책·공약자료를 요청하였으며, 9월 ~ 11월에 개최한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전문가 조사결과와 제15·16대 대선 토론회 의제를 참고하였다.

주제선정을 위해 11. 14. ~ 11. 16. 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여론조사 설문항목은 단체, 전문위원, 의제연구용역, 후보자 정책·공약자료, 전문가 조사결과 및 제15·16대 대선토론회 토론의제 등을 참조하여 이를 전문위원(의제분과) 회의와 준비소위원회회의의 검토를 거쳐 확정하였다.

4차례의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에 앞서 실시하였던 여론조사는 (주)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2007년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실시되었으며, 전국의 만 19세 이상의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하여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실시되었다. 여론조사의 응답율은 14.1%이고 표집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2.2\%$ 이다. 여론조사의 결과를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장 관심있는 현안분야는 경제분야, 교육분야, 복지분야 순으로 나타났다. 관심있는 분야로 경제분야라는 응답이 1순위와 2순위 합계 60.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교육분야(34.0%), 복지분야(29.1%)가 높았다. 또한, 노동(13.6%), 정치(13.3%), 사회(13.0%)분야가 13%대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여성(7.6%), 문화(7.0%), 통일(6.4%), 안보(6.3%)분야가 6-7% 수준인 반면, 외교(3.8%)와 과학(2.3%)분야는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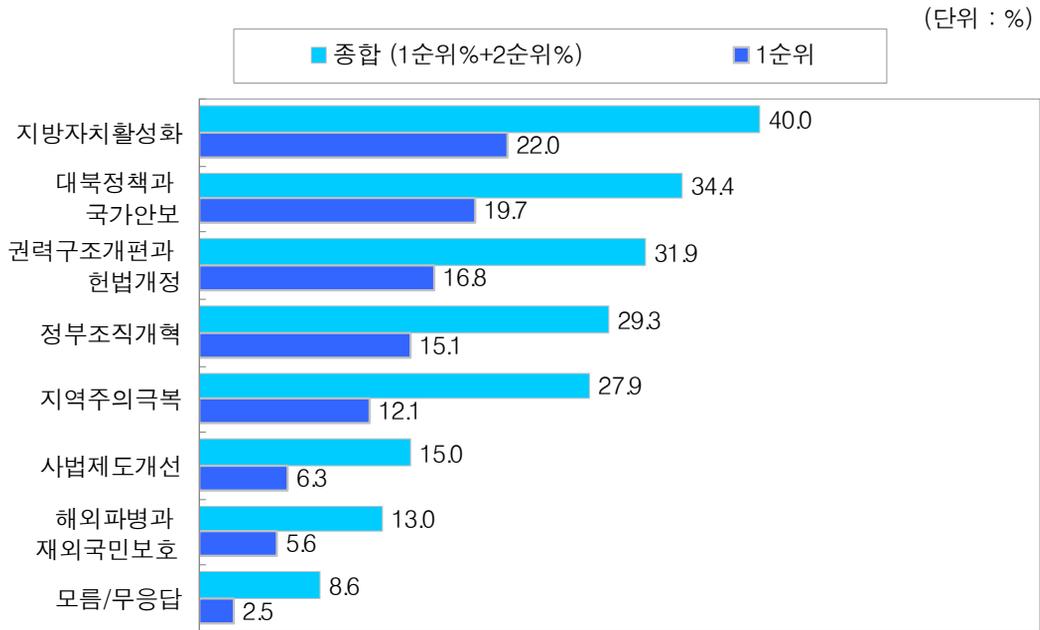
[그림 2-1] 분야별 조사결과



분야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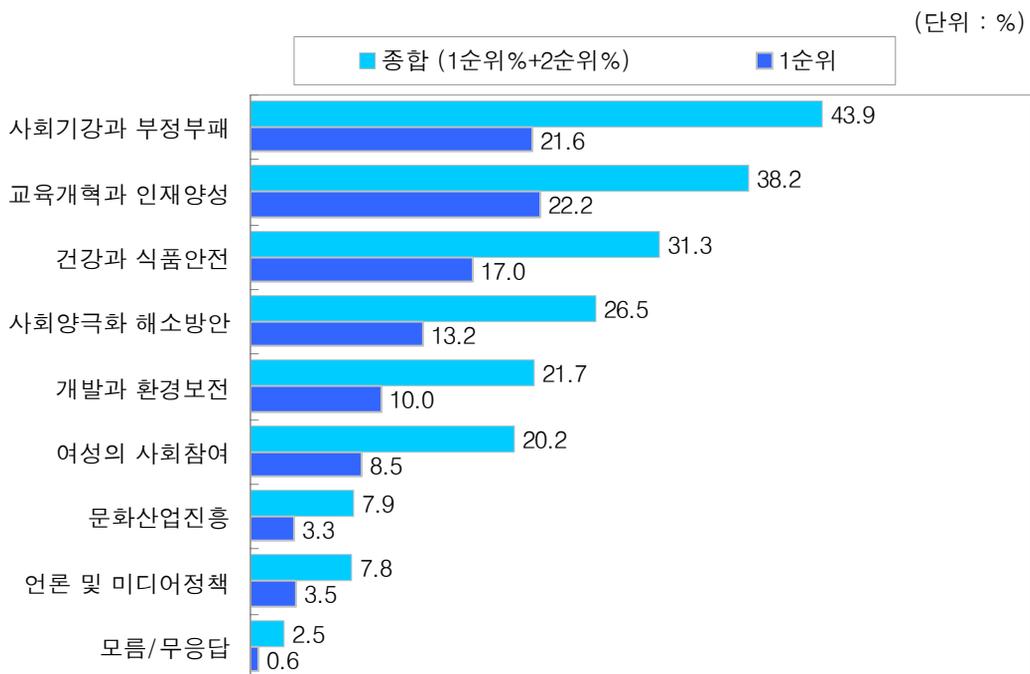
- ① 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의 TV토론과제로 ‘지방자치 활성화’라는 응답이 1 순위와 2순위 합계 40.0%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대북정책과 국가안보’(34.4%), ‘권력구조개편과 헌법개정’(31.9%), ‘정부조직개혁’(29.3%), ‘지역주의 극복’(27.9%) 등으로 나타났다. ‘사법제도 개선’(15.0%)과 ‘해외파병과 재외국민보호’(13.0%)라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그림 2-2] 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의 TV토론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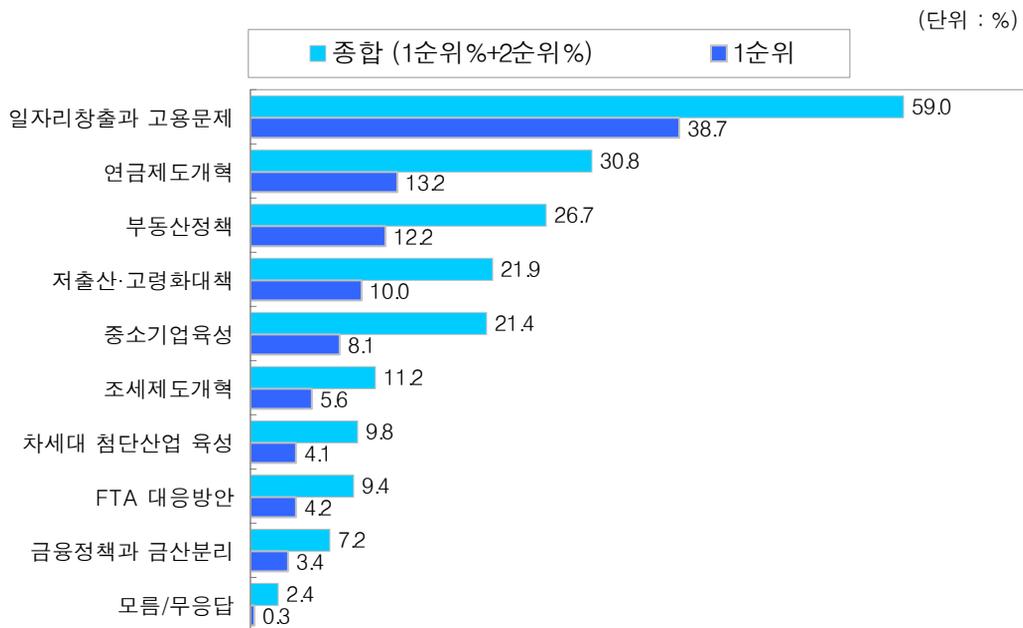
② 사회/교육/문화/여성분야의 TV토론 과제로는 ‘사회기강과 부정부패’라는 응답이 1순위와 2순위 합계 43.9%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교육개혁과 인재양성’(38.2%), ‘건강과 식품안전’(31.3%), ‘사회양극화 해소방안’(26.5%), ‘개발과 환경보전’(21.7%), ‘여성의 사회참여’(20.2%) 등의 순서로 응답했다. ‘문화산업진흥’(7.9%)과 ‘언론 및 미디어정책’(7.8%)이라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그림 2-3] 사회/교육/문화/여성분야의 TV토론 과제



③ 경제/노동/복지/과학분야의 TV토론 과제로는 '일자리창출과 고용문제'라는 응답이 1순위와 2순위 합계 59.0%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연금제도 개혁'(30.8%), '부동산정책'(26.7%), '저출산·고령화대책'(21.9%), '중소기업육성'(21.4%) 등으로 응답했다. '조세제도개혁'(11.2%)과 '차세대 첨단산업 육성'(9.8%), 'FTA 대응방안'(9.4%), '금융정책과 금산분리'(7.2%)라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그림 2-4] 경제/노동/복지/과학분야의 TV토론 과제



여론조사결과와 단체 및 전문위원 추천, 의제연구용역, 후보자 정책·공약자료, 전문가 조사결과 및 제15·16대 대선토론회 토론의제 등을 참조하여 주제안을 작성하였다. 이를 전문위원(의제분과)회의와 준비소위원회회의의 검토를 거쳐 위원회의에서 확정하였다.

[표 2-30] 후보자토론회 주제 현황

구 분	분 야	토론주제
1차	정치 · 외교 · 통일 · 안보	한반도 주변국가와의 현안문제(외교)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정책(통일 · 안보) 권력구조 개편과 헌법개정(정치)
2차	사회 · 교육 · 문화 · 여성	양성평등 실현방안(여성) 교육개혁과 사교육비 절감(교육) 세계화시대의 문화정책(문화) 사회기강확립과 부정부패(사회)
3차	경제 · 노동 · 복지 · 과학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방안(노동) 경제활성화를 위한 현실적 대안(경제) 차세대 첨단산업 육성(과학) 고령화사회와 복지정책 방향(복지)
비초청	초청대상 토론 전 분야	

10) 질문사항 선정

토론주제가 선정된 후에 사무국 질문사항안을 바탕으로 전문위원회의, 준비소위원회의의 검토 · 작성후 위원회의에서 선정하였는데 준비소위원회의에는 사회자도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

[표 2-31] 후보자토론회 주제 및 질문사항

구 분	토론주제	질문사항
1차	한반도 주변국가와의 현안문제(외교)	한 · 중 · 일간 역사인식 및 영토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정책 (통일 · 안보)	-
	권력구조 개편과 헌법개정(정치)	권력구조 개편 방안

2차	양성평등 실현방안(여성)	여성권의 향상을 위한 정책
	교육개혁과 사교육비 절감(교육)	-
	세계화시대의 문화정책(문화)	문화콘텐츠 개발 방안
	사회기강확립과 부정부패(사회)	사회 투명성 제고 방안
3차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방안(노동)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 해결 방안
	경제활성화를 위한 현실적 대안(경제)	-
	차세대 첨단산업 육성(과학)	장기적 성장 동력 구상
	고령화사회와 복지정책 방향(복지)	고령화사회의 복지정책 방향
비초청	권력구조 개편과 헌법개정	권력구조 개편 방안 지방자치 활성화 방안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정책	북핵문제 해결방안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견해
	사회기강확립과 부정부패	사회 투명성 제고 방안 사회 지도층 도덕적 책무 확보방안
	교육개혁과 사교육비절감	사교육비 경감방안 교권 확립 방안
	경제활성화를 위한 현실적 대안	경제활성화 방안 부동산 정책 방향
	고령화사회와 복지정책 방향	공적연금 개혁방안 노인 일자리 창출 방안
	한반도 주변국가와의 현안문제	한반도 주변국가와의 현안문제
	세계화시대의 문화정책	세계화시대의 문화정책
	양성평등 실현방안	양성평등 실현방안
	차세대 첨단산업 육성	차세대 첨단산업 육성에 대한 견해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방안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방안에 대한 견해

질문사항은 보안유지를 고려하여 사무국장이 모두 봉인하여 책임 관리하였으며, 초청1차와 비초청 질문사항은 규정에 따라 개최일전일에 선정하였으나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외부의 관심이 집중되는 등 보안에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초청 2·3차 질문사항은 토론회 개최 2시간 전에 방송사에서 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선정하였다.

11) UCC 동영상 공모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UCC 동영상 질문을 공모하여 총 345개의 UCC 동영상 질문이 응모되었다. 이 중 형식과 내용요건에 부합하는 UCC 동영상 질문을 준비소위원회의의 검토를 거쳐 위원회의에서 토론회별로 각 1개씩 선정하여 후보자에게 질문하는데 활용하였다.

[표 2-32] 후보자토론회 UCC동영상질문 현황

구 분	분 야	UCC동영상질문
1차	정치·외교·통일·안보	피랍사태에 대한 방안
2차	사회·교육·문화·여성	외국인 관광객 유치방안
3차	경제·노동·복지·과학	국민연금에 대해서
비초청	-	국제결혼에 대한 문제

UCC 동영상 질문사항 또한 보안유지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방송용 베타캠으로 제작하고 초청1차 및 비초청은 개최일전일에, 초청 2·3차 질문사항은 방송 2시간 전에 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선정하고 방송사에 인계하였다.

12) 토론진행방식 결정

진행방식분과 전문위원회의를 개최하여 각 포맷별 배정시간의 편차가 크지 않

도록 주제별 토론시간을 균등하게 하는 방안과 후보자간의 심층토론이 필요한 주제와 후보자간 상호비교가 가능한 주제에 대한 포맷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였으며, UCC 동영상질문을 활용한 주제에 대한 검토도 함께 하였다.

위원회의에서는 각 분야별로 선정된 주제와 후보자수를 감안, 후보자간 상호토론방식과 사회자 질문에 의한 후보자 답변 방식, 기초연설과 맺음말 등으로 진행방식을 결정하고 회차별로 동일한 진행방식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비초청 후보자토론회는 후보자간 상호토론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사회자 공통질문에 의한 후보자 답변으로만 진행방식을 결정하였다.

후보자가 당초 7인에서 6인으로 줄었으나 참석 후보자수가 많아 후보당 발언시간이 20분도 채 안되어 심층토론이 어려웠다는 점이 지적되었고, 후보자가 상호토론도 6명의 후보자토론이라는 한계로 인하여 효과적인 상호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었다. 그러나 6명 후보자의 120분 토론이라는 악조건 속에서 정치공방 보다는 정책대결을 유도하려 노력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으며 모든 후보자토론회에 UCC 동영상 질문방식을 도입하여 신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표 2-33] 후보자토론회 제1차 토론주제 및 진행방식

기초연설	진행방식	• 이인제/문국현/심대평/권영길/이회창/이명박/정동영(각1분30초)
	소요시간	10분30초
제1주제	토론주제	한반도 주변국가와의 현안문제
	진행방식	• 사회자 질문(30초) ➔ 문국현/심대평/권영길/이회창/이명박/정동영 답변(각1분)
	소요시간	7분30초

	토론 주제	복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정책
	진행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대평 후보자 모두발언(1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영길/이회창/이명박/정동영/이인제/문국현 후보자 반론(각1분) ➔ 심대평 후보자 재반론(1분30초) • 권영길 후보자 모두발언(1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회창/이명박/정동영/이인제/문국현/심대평 후보자 반론(각1분) ➔ 권영길 후보자 재반론(1분30초) • 이회창 후보자 모두발언(1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명박/정동영/이인제/문국현/심대평/권영길 후보자 반론(각1분) ➔ 이회창 후보자 재반론(1분30초) • 이명박 후보자 모두발언(1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동영/이인제/문국현/심대평/권영길/이회창 후보자 반론(각1분) ➔ 이명박 후보자 재반론(1분30초) • 정동영 후보자 모두발언(1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인제/문국현/심대평/권영길/이회창/이명박 후보자 반론(각1분) ➔ 정동영 후보자 재반론(1분30초) • 이인제 후보자 모두발언(1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국현/심대평/권영길/이회창/이명박/정동영 후보자 반론(각1분) ➔ 이인제 후보자 재반론(1분30초) • 문국현 후보자 모두발언(1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대평/권영길/이회창/이명박/정동영/이인제 후보자 반론(각1분) ➔ 문국현 후보자 재반론(1분30초)
제2주제	소요 시간	59분30초
	토론 주제	UCC 동영상 질문
UCC 동영상 질문	진행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자 질문(30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영길/이회창/이명박/정동영/이인제/문국현/심대평 답변(각1분)
	소요 시간	7분30초

제3주제	토론 주제	권력구조 개편과 헌법개정
	진행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자 질문(30초) ➔ 이회창/이명박/정동영/이인제/문국현/심대평/권영길 후보자 답변(각1분)
	소요 시간	7분30초
맺음말	진행 방식	이명박/정동영/이인제/문국현/심대평/권영길/이회창 (각1분)
	소요 시간	7분

[표 2-34] 후보자토론회 제2차 토론주제 및 진행방식

기초연설	진행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대평/문국현/정동영/이명박/이인제/권영길/이회창 (각1분)
	소요 시간	7분
제1주제	토론 주제	양성평등 실현방안
	진행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자 질문(30초) ➔ 문국현/정동영/이명박/이인제/권영길/이회창/심대평 후보자 답변(각1분)
	소요 시간	7분30초
제2주제	토론 주제	교육개혁과 사교육비 절감
	진행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동영 후보자 모두발언(1분) - 이명박/이인제/권영길/이회창/심대평/문국현 후보자 반론(각1분) ➔ 정동영 후보자 재반론(1분30초) • 이명박 후보자 모두발언(1분) - 이인제/권영길/이회창/심대평/문국현/정동영 후보자 반론(각1분) ➔ 이명박 후보자 재반론(1분30초) • 이인제 후보자 모두발언(1분) - 권영길/이회창/심대평/문국현/정동영/이명박 후보자 반론(각1분)

제2주제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인제 후보자 재반론(1분30초) • 권영길 후보자 모두발언(1분) - 이회창/심대평/문국현/정동영/이명박/이인제 후보자 반론(각1분) ➔ 권영길 후보자 재반론(1분30초)
	행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회창 후보자 모두발언(1분) - 심대평/문국현/정동영/이명박/이인제/권영길 후보자 반론(각1분) ➔ 이회창 후보자 재반론(1분30초)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대평 후보자 모두발언(1분) - 문국현/정동영/이명박/이인제/권영길/이회창 후보자 반론(각1분) ➔ 심대평 후보자 재반론(1분30초)
	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국현 후보자 모두발언(1분) - 정동영/이명박/이인제/권영길/이회창/심대평 후보자 반론(각1분) ➔ 문국현 후보자 재반론(1분30초)
	소요시간	59분30초
UCC 동영상 질문	토론주제	UCC 동영상 질문
	진행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자 질문(30초) ➔ 이명박/이인제/권영길/이회창/심대평/문국현/정동영 후보자 답변(각1분)
	소요시간	7분30초
제3주제	토론주제	세계화시대의 문화정책
	진행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자 질문(30초) ➔ 이인제/권영길/이회창/심대평/문국현/정동영/이명박 후보자 답변(각1분)
	소요시간	7분30초
제4주제	토론주제	사회기강확립과 부정부패
	진행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자 질문(30초) ➔ 권영길/이회창/심대평/문국현/정동영/이명박/이인제 후보자 답변(각1분)
	소요시간	7분30초

맺음말	진행 방식	• 이회창/심대평/문국현/정동영/이명박/이인제/권영길 (각1분)
	소요 시간	7분

[표 2-35] 후보자토론회 제3차 토론주제 및 진행방식

기초 연설	진행 방식	• 이명박/이인제/이회창/정동영/권영길/문국현/심대평 (각1분)
	소요 시간	7분
제1주제	토론 주제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방안
	진행 방식	• 사회자 질문(30초) ➔ 이인제/이회창/정동영/권영길/문국현/심대평/이명박 답변(각1분)
	소요 시간	7분30초
제2주제	토론 주제	경제활성화를 위한 현실적 대안
	진행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회창 후보자 모두발언(1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동영/권영길/문국현/심대평/이명박/이인제 후보자 반론(각1분) ➔ 이회창 후보자 재반론(1분30초) • 정동영 후보자 모두발언(1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영길/문국현/심대평/이명박/이인제/이회창 후보자 반론(각1분) ➔ 정동영 후보자 재반론(1분30초) • 권영길 후보자 모두발언(1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국현/심대평/이명박/이인제/이회창/정동영 후보자 반론(각1분) ➔ 권영길 후보자 재반론(1분30초) • 문국현 후보자 모두발언(1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대평/이명박/이인제/이회창/정동영/권영길 후보자 반론(각1분) ➔ 문국현 후보자 재반론(1분30초) • 심대평 후보자 모두발언(1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명박/이인제/이회창/정동영/권영길/문국현 후보자 반론(각1분) ➔ 심대평 후보자 재반론(1분30초)

제2주제	진행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명박 후보자 모두발언(1분) - 이인제/이회창/정동영/권영길/문국현/심대평 후보자 반론(각1분) ➔ 이명박 후보자 재반론(1분30초) • 이인제 후보자 모두발언(1분) - 이회창/정동영/권영길/문국현/심대평/이명박 후보자 반론(각1분) ➔ 이인제 후보자 재반론(1분30초)
	소요 시간	59분30초
UCC 동영상 질문	토론 주제	UCC 동영상 질문
	진행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자 질문(30초) ➔ 정동영/권영길/문국현/심대평/이명박/이인제/이회창 답변(각1분)
	소요 시간	7분30초
제3주제	토론 주제	차세대 첨단산업 육성
	진행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자 질문(30초) ➔ 권영길/문국현/심대평/이명박/이인제/이회창/정동영 답변(각1분)
	소요 시간	7분30초
제4주제	토론 주제	고령화사회와 복지정책 방향
	진행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자 질문(30초) ➔ 문국현/심대평/이명박/이인제/이회창/정동영/권영길 답변(각1분)
	소요 시간	7분30초
맺음말	진행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대평/이명박/이인제/이회창/정동영/권영길/문국현/심대평(각1분)
	소요 시간	7분

[표 2-36] 비초청후보자토론회 토론주제 및 진행방식

기조 연설	진행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관/허경영/정근모/금민 후보자(각1분30초)
	소요 시간	6분

제1주제	토론 주제	권력구조 개편과 헌법개정
	진행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자 질문(30초) → 허경영/정근모/금민/전관 후보자 답변(각1분30초) • 사회자 질문(30초) → 정근모/금민/전관/허경영 후보자 답변(각1분)
	소요 시간	11분
제2주제	토론 주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정책
	진행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자 질문(30초) → 금민/전관/허경영/정근모 후보자 답변(각1분30초) • 사회자 질문(30초) → 전관/허경영/정근모/금민 후보자 답변(각1분)
	소요 시간	11분
제3주제	토론 주제	사회기강확립과 부정부패
	진행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자 질문(30초) → 허경영/정근모/금민/전관 후보자 답변(각1분30초) • 사회자 질문(30초) → 정근모/금민/전관/허경영 후보자 답변(각1분)
	소요 시간	11분
UCC 동영상 질문	토론 주제	UCC 동영상 질문
	진행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자 질문(30초) → 금민/전관/허경영/정근모 후보자 답변(각1분30초)
	소요 시간	6분30초
제4주제	토론 주제	교육개혁과 사교육비절감
	진행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자 질문(30초) → 전관/허경영/정근모/금민 후보자 답변(각1분30초) • 사회자 질문(30초) → 허경영/정근모/금민/전관 후보자 답변(각1분)
	소요 시간	11분
제5주제	토론 주제	경제활성화를 위한 현실적 대안
	진행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자 질문(30초) → 정근모/금민/전관/허경영 후보자 답변(각1분30초) • 사회자 질문(30초) → 금민/전관/허경영/정근모 후보자 답변(각1분)
	소요 시간	11분

제6주제	토론 주제	고령화사회와 복지정책 방향
	진행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자 질문(30초) → 전관/허경영/정근모/금민 후보자 답변(각1분30초) • 사회자 질문(30초) → 허경영/정근모/금민/전관 후보자 답변(각1분)
	소요 시간	11분
제7주제	토론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 주변국가와의 현안문제 - 양성평등 실현방안 - 차세대 첨단산업 육성 - 세계화시대의 문화정책 -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 방안
	진행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자 질문(30초) → 정근모/금민/전관/허경영 후보자 답변(각2분) • 사회자 질문(30초) → 금민/전관/허경영/정근모 후보자 답변(각1분30초)
	소요 시간	15분
맺음말	진행 방식	• 전관/허경영/정근모/금민 후보자(각1분30초)
	소요 시간	6분

13) 토론회 개최 공표 · 홍보

토론회 개최 공표는 12. 1. 사회자 선정 후 게시판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였다. 공표사항은 토론회 개최일시 · 장소, 중계방송사명, 중계방송일시, 참석후보자 성명, 토론주제 및 진행방식이었으며, 중앙선관위, 시 · 도토론회, 중계방송사 및 후보자에게 통지 · 안내하였다.

토론회 개최 공표 후 국민중심당 심대평 후보가 토론회 참석 포기서를 12. 4. 제출함에 따라 참석 후보자 성명과 토론진행방식을 즉시 변경공표하고 관련 기관 및 후보자에게 재통지하였다.

토론회 개최 홍보는 정치포털사이트와의 연계, 인터넷 홈페이지 및 중계방송사 등을 통하여 추진하였으며, 보도자료 목록을 사전에 작성하고 공보과를 통하여 위원회의 활동상황이 국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언론사에 제공하였다.

UCC 동영상 공모는 시 · 도, 정치포털사이트, 대선홍보섹션(포털 naver 연계) 등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홍보하고 판도라TV, 엠엔캐스트, 엠군 등 동영상 전문

매체와 바선모 소식지에 광고를 게재하였으며, 7개 대학의 방송국에 촬영을 지원하는 등 처음시도하는 동영상 질문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14) 설명회 개최

12. 1. 초청대상 후보자 7인의 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발언순서 결정에 따라 토론진행방식 등을 자세하게 안내하고 토론회 당일 일정과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였다.



각 토론회별 후보자 좌석 및 발언순서를 추천한 결과 제1차 토론회는 A : 이인제, B : 문국현, C : 심대평, D : 권영길, E : 이회창, F : 이명박, G : 정동영 후보자로 결정되었고, 제2차 토론회는 A : 심대평, B : 문국현, C : 정동영, D : 이명박, E : 이인제, F : 권영길, G : 이회창 후보자로 결정되었으며, 제3차 토론회는 A : 이명박, B : 이인제, C : 이회창, D : 정동영, E : 권영길, F : 문국현, G : 심대평 후보자로 결정되었다.

후보자 측 대리인들로부터 상호토론시 반론할 상대 후보가 아닌 특정 후보에 관하여 발언하는 경우의 대책과 인신공격성 발언에 대한 제지, 그리고 허위사실 등의 발언에 대한 식별에 관한 문제 및 방송사의 UCC 동영상 질문 유출에 대비한 보안 대책을 강구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화면구성 및 후보자의 위법 발언시 등 대응요령'을 위원회에서 검토하였다.

12. 7. 비초청 대상 후보자의 대리인 4인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후보자 좌석 및 발언순서 추천 결과 A : 전관, B : 허경영, C : 정근모, D : 금민 후보자로 결정되었으며 발언순서 결정에 따라 토론진행방식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토론회 당일 일정과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였다.

15) 토론회 장소 설비

사전에 위원회의 토론회장 설비안을 중계주관방송사측에 제시하고 토론회 장소가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설비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협의하였다.

사회자좌석을 화면상 제일 좌측에 두고 토론자 좌석은 중앙에 배치하였으며, 토론자 뒷면에 '제17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타이틀, 토론자와 제작스태프 사이에 '제17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주관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타이틀을 배치하여 풀샷시 자연스럽게 방송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제시된 토론회장 설비안과는 달리 초청1차 토론회의 경우에는 사회자의 좌석 배치가 주관방송사의 기술상 문제로 화면상 오른쪽에 배치되었고, 초청2차 토론회의 경우에는 카메라 배치 수량이 토론회 당일에도 정해지지 않는 등 설명회에서 후보자측에 안내하였던 내용과 다르게 설비되는 혼란이 있었다.

16) 토론회 진행

후보자의 방송사 도착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다른 후보자보다 스튜디오에 늦게 들어가기 위해 입장을 늦추거나 하여 리허설이 지연되는 등 방송준비에 어려운 점이 있었으나 모든 후보자가 토론회에 참석하여 토론회는 무리없이 진행되었다.

토론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회자가 토론진행표의 시간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후보자의 발언시간은 발언을 시작한 때부터 기산하고 발언시간이 경과한 후 5초가 지나면 자동적으로 마이크의 전원이 꺼짐을 안내하고 발언시간 준수를 요청하였다. 또한, 후보자간 상호토론의 경우 후보자간 상호비방, 인신공격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사회자가 권고하였다.

참석후보자 등이 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발표하는 때에는 사회자로 하여금 이

를 제지하거나 중지하도록 하고, 당해 후보자의 발언이 종료된 후 사회자가 그 사실을 공지하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또한 위법발언 유형별 카드를 작성하여 사무국장, 중앙선관위 법규해석담당 사무관이 사회자 옆에 배석하여 위법내용이 발생될 때마다 약속된 카드내용을 사회자에게 고지하여 후보자의 위법발언에 철저히 대비하였다.

원만한 토론회 진행을 위하여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한 화면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계주관방송사에 토론회 방송화면구성에 대한 협조 요청을 하였으며, 엔딩 자막은 위원회가 제공하는 자료에 따라 위원 등의 직·성명 등과 의제 추천단체 및 협조기관 등도 표출되도록 하였다.

토론 중간에 토론위원회가 주관·개최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자막처리하여 위원회의 기관 홍보 및 위상을 제고하였으며, 위원 및 직원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하여 무전기 이어폰을 착용하여 토론회 진행에 큰 도움이 되었다.

17)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

후보자에 대한 테러에 대비하고 토론회장의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사전에 관계기관간의 안전관리대책회의를 주도적으로 개최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관계기관 간 비상연락망을 항시 구축하여 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토론회장의 출입자를 후보자당 5명으로 적절히 통제하고 리허설전과 토론회 종료 후 토론회장 출입자를 철저히 통제함으로써 토론회장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토론회를 언론사가 취재하여 보도할 수 있도록 방송사카메라와 신문사 사진기자 각 1명은 토론회장에서 취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

초청1차 토론회 개최 후 후보자 측으로부터 출입증 분실을 이유로 재발급 요청있어 총기탈취 사건 등을 감안하여 출입증을 각 토론회마다 새로 제작·배부하며 후보자의 안전관리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임을 후보자측 및 중계주관방송사

등 유관기관에게 적극 안내하는 등 철저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였다.

18) 위원 및 전문위원 워크숍

후보자토론회의 완벽한 주관·진행을 위하여 위원 및 전문위원 워크숍을 10. 11. 위원회의실에서 개최하여, 한양대 정대철 교수(제16대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을 역임)와 경기대 송종길 교수의 발제를 듣고 자유토론을 하며 후보자토론회의 바람직한 관리방향을 모색하였다.

19) 언론보도

토론회 개최전에는 지지율 격차가 크고, 후보난립에 따라 할당시간이 제한되며, 백화점 나열식 진행방식문제와 경직된 토론운영방식 때문에 토론회의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 내용이 많았으며 토론시간에 대한 법 개정 필요, 군소후보에 대한 형평성 보완 및 주요후보 2~3인 토론회 개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보완 의견도 제시되었다.

초청 1차 토론회 개최 후에는 6명이 돌아가면서 반론, 재반론하므로 내용 기억이 어렵고, 주제와 다른 답변으로 논의가 왜곡되고 이에 대한 제지 방안이 없는 토론구조의 한계, 기계적 분배로 개인 연설의 연속이고 천편일률적 답변으로 차별성이 없으며, 의제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며 전체적 흐름이 딱딱하여 유익하지 않다는 부정적 의견이 있었다.

이에 대한 보완 의견으로 각자 4,5분의 발언기회를 주고 자유롭게 상호토론을 유도해야 할 것, 1:1토론을 도입하거나 토론참가자를 2개조로 분리하고 총량시간제를 도입하며 토론쟁점을 1,2개로 줄이자는 의견이 있었으며, 몇 가지 문제에 대해 보수와 진보의 색채가 뚜렷이 나누어진 점은 수확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초청 2차 토론후에는 각 후보의 차별화 전략 부족, 답변시간이 짧고 반론기회가 없으며, 상호토론시간을 자기주장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모범답안을 반복하여 흥미를 끌어내지 못한 밋밋한 토론이라는 부정적 의견이 있었다.

반대 의견으로는 네거티브성 공격이 거의 없어 긍정적이기도 하며, 답변의 반복으로 후보간의 차별성은 부각되었다고 평가하고, 시간에 쫓기는 한계는 여전하므로 주제를 줄이더라도 집중적인 토론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보완 의견이 제시되었다.

초청 3차토론 후에는 시민의 참여가 적고 시간이 촉박하다는 부정적 평가와 답변이 예상되는 질문보다 치열한 논쟁이 예상되는 논점에 토론을 집중시킬 수 있는 맞장토론이 필요하며, 참가자가 3인이 넘지 않도록 지지율 10% 이상의 후보자만 참여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비초청 토론후에는 후보자들의 홍보기회가 부족하다는 불만이 보도되었다.

20) 시청률

토론회 시청률은 초청1차 27.0%, 초청2차 23.5%, 초청3차 21.5%, 비초청 5.6%로 나타난바, SBS를 제외한 양 공영방송사만 중계한 시청률을 비교할 때 제16대 대선 후보자 합동토론회보다 다소 낮은 시청률을 보였다.

[표 2-37] 후보자 토론회 시청률 현황

구분	AGB					조사지역	
	KBS1	MBC	SBS	계	KBS1+MBC		
16대	초청1차	19.0	13.4	6.1	38.5	32.4	전국
	초청2차	18.9	12.0	5.8	36.7	30.9	
	초청3차	18.8	12.0	5.6	36.4	30.8	
	비초청	3.3	2.5	2.5	8.3	5.8	
17대	초청1차	18.4	8.6	-	27.0	27.0	전국
	초청2차	15.0	8.5	-	23.5	23.5	
	초청3차	12.5	9.0	-	21.5	21.5	
	비초청	3.2	2.4	-	5.6	5.6	

나. 후보자토론회 평가 세미나 개최

제17대 대통령선거일이 끝난 2007. 12. 27(수) 14:00부터 송실대학교 벤처관 311호에서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주관으로 정치·언론·학계, 위원회 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평가 및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 아래 제17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토론 평가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세미나에서 정성호 동명대 교수는 「대통령선거 TV토론 방송법·제도 평가 및 개선방향」이라는 발제문에서, TV토론에 대한 평가 및 문제점을 1) 토론 참여 초청 후보자 범위 2) 토론회 횟수와 형식 3) 토론주제 4) 토론 시기 및 장소 5) 패널리스트 및 사회자 선정 6) 시민 TV토론 교육, 토론참여, 평가 7) 토론의제로 구분하여 제시하였고 이에 대해 전희락 동아방송예술대 교수, 강미은 숙명여대 교수, 김경환 MBC 정책기획팀 박사가 토론자로 참석하여 논의하였다.

오창우 계명대 교수는 「2007년 대통령후보토론투송 토론내용 및 포맷 평가」라는 발제문에서, 1) 제17대 대선에서의 TV토론의 형식적 특징 및 문제점 2) 제17대 대선 TV토론회 분야별 쟁점 3) TV를 통한 토론이 가지는 본질적인 한계를 제시하고 아울러 TV토론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제언을 하였고 이에 대해 박태순 중앙대 박사, 김덕영 코리아리서치센터 사장, 배노준 스키드마크 사장, 전선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논의하였다.

송종길 경기대 교수와 박성호 방송협회 연구위원은 「2007년 대통령선거와 TV토론 효과에 관한 연구」라는 발제문에서, 유권자들의 공직후보 TV토론의 이용동기를 분석하고 후보에 대한 태도 및 후보선택에 대해 분석하고 대통령 선거에서 TV토론의 기능과 정치적 영향력을 검증하여 TV토론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 검증되었다는 결과를 도출해냈다. 이에 대해 이수범 인천대 교수, 노규형 리서치앤 리서치 사장, 이준호 동의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하여 논의하였다.

다. 위원 워크숍 개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2008. 4. 17(목)부터 18(금)까지 이틀에 걸쳐 지난 제 17대 대통령선거에서의 선거방송토론 개최결과를 바탕으로 선거방송토론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업무 개선사항 및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한 위원회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위원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워크숍에서는 먼저, 공영방송사가 제1차적 중계의무를 가짐에 따른 제작의존도가 커 시청률이 높은 방송시간대 확보가 곤란하고 중계방송을 원하는 다른 방송사가 진입하는데 장애가 있으므로 보다 많은 방송사의 중계방송 참여를 보장하는 등 토론회 중계방송과 관련하여 중계방송할 공영방송사의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시간을 가졌다. 특히, 토론회의 동시중계가 방송시간 편성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바 양 방송사의 프로그램 편성방법(시간)이 상이하여 같은 방송시간대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어려우므로, 동시중계를 개별중계로 전환하거나 개별중계시 중계방송하지 않은 다른 공영방송사는 일정 시간대에 재방송 등을 실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였다.

또한, 법으로 정해놓은 토론회의 초청기준에 따라 다수의 초청대상 후보자를 초청함으로써 인한 토론회의 내실있는 진행이 곤란함과 동시에 토론회의 개최 취지가 상실되고 후보자의 검증기능이 축소됨에 따라 초청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활발한 의견 개진이 있었다.

한편, 언론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는 제도 개선 문제와 후보자의 참석 기피로 인한 토론회의 참석을 유도하는 방안, 그리고 합동방송연설회 개최 요건을 축소하는 방안, 토론의제 관련 문제, 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직무와 관련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이어나갔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각종 선거방송토론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논의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선거방송토론의 관리·운영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제 3절 선거방송토론의 원활한 주관·진행

1. 개 요

2007. 12. 19 실시 제17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토론의 공정하고 완벽한 관리를 위하여 분야별로 철저한 사전 준비를 위해 노력하였고 토론 참여 당사자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원만한 토론 진행이 되도록 힘을 기울였다. 2004년 위촉된 중앙토론위원회 위원들이 임기(3년)가 만료됨에 따라 새로이 위원 정비를 하였다.

2006년에 이어 사회자 풀(POOL)을 계속 확보하여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회자를 발굴하는 한편, 선거방송토론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 분과별 전문위원들을 보강하고 토론의 역동성을 높이고 심층토론이 가능한 진행방식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각종 여론조사 및 연구 용역 등을 통하여 각 분야별 주요 현안 등에 대한 이슈 중심으로 토론의제를 발굴·조사하였다. 또한 선거방송토론의 공정관리를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각 정당 및 공영방송사,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각종 협의 등의 업무 조정 및 의견 수렴을 하였다.

2. 주요 추진실적

가. 각급토론위원회 위원 정비

2004년 3월 공직선거법 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다수 위원들의 임기(3년)가 제17대 대통령선거 및 제18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일시적으로 만료됨에 따라 위원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각계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추가 영입하여 토론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였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2007. 3. 20(화) 위원 위촉장 전수식 및 위원회의

를 개최하여 정병운 상임위원의 주재 아래 위원장 호선안을 상정하여 이성준 위원이 출석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시·도 및 구·시·군토론위원회에는 위원 정비 및 위원장 호선 방법 등을 명시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정비 지침을 시달하였고 특히, 추천단체가 추천한 인사에 대해서는 그 자격 및 위촉기준 적합여부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위촉함으로써 직무수행에 있어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정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표 2-38] 위원 구성 현황

[2007. 5. 31 현재]

구 분	위원회 수	위 원 수		정 당 추 천		공영방송사추천		일 반 추 천					
		정 원	현 원	열 린 우리당	한 나 라 당	KBS	MBC	방 송 위원회	학 계	법조계	시민 단체	지상파 케이블 방송사	기 타
합 계	199	1793	1496	155	168	141	127	117	151	181	106	94	297
중 앙	1	11	10	1	1	1	1	1	1	1	1	-	2
시·도	16	144	122	13	14	15	16	14	16	16	10	4	7
구·시·군	182	1638	1364	141	153	125	110	102	134	164	95	90	288

나.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회자 확보

제17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정하고 중립적이며 전문성을 겸비한 사회자 후보군을 파악하기 위하여 2006년에 파악한 사회자 후보군에 추가하여 학계·방송계·시민단체 등 전문가 집단 40개 단체에 사회자 후보를 추천 의뢰한 후 8개 단체에서 추천한 17명 중 자체 심의를 거쳐 12명과 자체 조사 6명, 총 18명을 사회자 후보군에 추가하였다.

[표 2-39] 사회자 후보군(POOL) 현황

(단위 : 명)

구분	성 별		연 령 별				직 업 별		
	남	여	30대	40대	50대	60대	학계	언론·방송계	법조계
계	47	13	3	28	27	2	41	13	6

또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구·시·군토론위원회가 사회자 추천 대상자의 방송진행 능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회자 동영상을 웹하드(web hard)에 게시하여 참고하도록 하였다.

[표 2-40] 지역별 사회자 후보군(POOL) 현황

(단위 : 명)

계	중 앙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523	57	59	37	25	23	13	14	12	77	29	20	30	32	36	17	37	5

사회자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정당의 당원이나 특정 정당·후보자와 관련하여 활동한 자는 제외하였으며 생방송 또는 선거방송토론 진행 경험이 있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 및 시사문제를 비롯한 사회 제반 이슈나 다양한 정책에 대한 이해를 갖추었는지 등에 중점을 두었다.

다. 자문(전문)위원 추가 위촉·활용

자문(전문)위원 제도는 규칙 제18조(자문위원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선거방송토론의 주제 및 진행방식의 수립에 있어 외부 전문가로서 선정·결정과정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도모하고 심도있는 검토과정을 통해 토론주제 및 진행방식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는 제도이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7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를 흠없이 관리하기 위해 진행방식분과 전문위원 1명과 그간 정치·행정·언론 등 한정된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이슈에 대한 이해·해석의 어려움과 의제 수집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토



대로 토론주제를 선정하는 작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선정 전단계인 의제 수집과정에서 전문위원의 식견 미반영과 전반적인 수집경로의 취약성이 노정되어 국정전반에 걸친 다양한 의제를 발굴하고 의제선정의 전문성을 확보, 선거방송토론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의제분과 4명을 추가로 위촉하였다.

특히, 국정전반에 걸친 의제 발굴 및 검토에 적합한 학계 교수 등 전문가를 위주로 기 위촉된 전문위원의 전공학과와 다른 분야를 우선 고려하여 경제, 통일·외교, 사회, 지방자치, 시민활동·복지환경 및 문화·예술 등 취약 분야의 인사를 적극 발굴함과 동시에 전공학과에 구애됨이 없이 세부전문분야의 확보 필요성에 따라 추가 위촉하였다.

한편, 시·도 및 구·시·군토론회위원회는 자체 실정에 따라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토론 준비와 관련하여 자문(전문)위원을 정비토록 하였다.

전문위원들은 △ 토론회의 개최 및 진행에 관한 사항 △ 토론회의 사회자·질문자 선정 및 토론주제·진행방식에 관한 사항 △ 토론회의 개최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 토론회의 기법 및 모델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토론문화 육성을 위한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등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수시 자문하고 있다.

중앙위원회는 2007. 2. 23(목) 위원회의실에서 전문위원 위촉식을 개최하여 의제 분과, 진행방식 분과별로 각 4명씩 총 8명의 전문위원을 추가로 위촉하였다.

[표 2-41] 전문위원 명단(중앙)

[2007. 12. 31 현재]

분 과	성 명	현 직	위촉일자
진행방식	강 미 은	숙명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2007. 5.29
	김 춘 식	한국외국어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2006. 2.23
	송 종 길	경기대 다중매체영상학부 교수	
	이 강 형	경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 상 철	성균관대 교양학부 교수	
의 제	김 선 업	고려대 한국사회연구소 데이터분석실장	2006. 2.23
	이 원 희	한경대 행정학과 교수	2007. 3. 2
	김 우 준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연구교수	
	조 주 우	단국대 국악과 교수	
	차 명 제	성공회대 NGO대학원 연구교수	
	최 창 의	강릉대 지역개발학과 교수	

라. 내실있는 토론유도를 위한 진행방식 개발

토론자간 공정한 발언기회 부여 및 효율적 시간운영에 관한 방식 및 토론의 역동성을 높이고 심층토론이 가능한 진행방식을 개발하기 위하여 각종 정책토론회 진행방식 작성시 전문위원의 충분한 자문을 구하였다. 또한,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각 정당(대통합민주신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에서 개최한 경선 TV토론의 진행방식을 수집하고 장·단점을 분석함으로써 제17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진행방식 작성시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마. 분야별 토론의제 발굴·조사

제17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토론 의제의 수집 경로를 다원화하고 토론주제 선정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 주요 현안 등 이슈를 중심으로 한 다

양한 조사기법을 활용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자세한 내용은 “제2절 정책토론회 관리”참조).

또한, 사단법인 한국대통령학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제17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공정한 후보자토론회를 위하여 과거 제15대와 제16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와 주요 정당의 당내 경선 토론의제를 분석하고 대통령 평가요소(예: 덕목, 가치관, 도덕성, 청렴성, 정치적 능력, 국정수행능력 등)는 무엇인지, 이번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어떠한 평가요소들이 상대적으로 더 부각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하고 대통령후보자에 대한 평가요소에 기반을 두어 제17대 대통령 후보자간의 공정한 토론회를 유도할 수 있도록 각 국정분야별(예: 정치, 외교, 통일, 안보, 사회, 교육, 문화, 여성, 경제, 노동, 복지, 과학 등)로 10대 주제를 개발한 후, 매 주제마다 공통질문 및 후보자별 개별질문을 개발하였다. 이로써, 제17대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정책과 자질을 비교, 평가할 수 있는 차별화된 의제 개발로 유권자들의 올바른 후보자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제 4 절 선거방송토론의 실무연수 · 연구 · 평가

1. 개 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 실무직원들의 방송제작관련 전문지식의 함양으로 선거방송토론 실무능력을 배양하고 선거방송토론 주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연수 기회를 마련하였다. 또한 연구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선거방송토론모델을 연구하였으며 선거방송토론의 효과분석 등을 통한 효용성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주요 추진실적

가. 토론 실무관계자 위탁 연수

집합 및 사이버연수의 병행 추진을 통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방송프로그램 제작 매카니즘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선거방송토론회 주관·진행에 필요한 방송 제작과정을 중점으로 한 연수 교과과정을 편성하였으며 1인 1실습기자재 이용 및 스튜디오·조정실 등 방송시설을 활용하는 등 현장 실습 위주의 연수 진행으로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표 2-42] 집합연수 및 사이버연수 교육기간

구 분	교육기간	교육일수	연수인원	비고
집합연수	2007. 3. 5 ~ 3. 9	5일	11명	
	2007. 3. 12 ~ 3. 16	5일	11명	
사이버연수	2007. 3. 5 ~ 3. 30	28일	264명	

위탁연수기관은 (재)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으로 선정하여 집합연수는 2007. 3. 5 ~ 3. 9 (1차), 3. 12 ~ 3. 16 (2차)로 나누어 진행하였

으며, 사이버연수는 2007. 3. 5 ~ 3. 30 동안 진행하였다. 연수인원은 중앙, 시·도 및 구·시·군토론회위원회 담당자로 총 296명이었다.

연수결과, 방송 제작 메카니즘과 프로그램의 기획·제작 등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함으로써 방송프로그램의 용어 및 제작과정에 대한 이해를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향후 선거방송토론회 주관·진행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특히, 집합연수의 경우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과 실제 사용되고 있는 장비를 직접 실습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방송제작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표 2-43] 집합연수 교육과정 편성표

차 수 별	강좌 및 담당강사	내 용
1일차	오리엔테이션	- 과정 안내, 오리엔테이션
	방송제작 메카니즘의 이해 (한호섭 KBS PD)	-방송제작과정에 대한 이해 -프로그램별 개괄적 특징 -기획서, 구성안의 이해
2일차	프로그램 기획실무 I (지현주 작가)	-기획·구성의 실제, 아이디어 발상법 -아이템선정과 기획서 작성 -촬영 구성안
	프로그램 기획실무II (지현주 작가)	-구성안, 콘티, 큐시트 사례연구 -촬영·편집구성안, 사전제작 review
3일차	카메라의 이해 (노홍석 허브넷 PD)	-카메라의 특성(HDV, ENG, EFP)과 매뉴얼 -카메라 무빙 및 영상문법 -화면구성과 촬영 테크닉
	촬영실습	-촬영실습 및 촬영클리닉

4일차	스튜디오 방송제작 실습 I (안선주 한국방송제작단 감독)	-스튜디오제작 시스템의 이해 -스튜디오 조명 -스튜디오스태프의 역할과 직무 -부조 스태프의 역할과 직무
	스튜디오 방송제작 실습 II	-Role Playing 실습, 최종제작 리허설
5일차	스튜디오 방송제작 실습 III	-Role Playing을 통한 방송제작
	강평 / Q & A	-강평, Q&A
	교육평가 및 수료식	-교육평가 설문, 수료식

그리고, 사이버 연수의 경우 집합연수와 같이 직접 실습을 할 수는 없었지만 다양한 방송화면 자료의 동영상을 통한 강의로 수강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었으며, 교육기간 이후에도 3개월 동안 반복학습이 가능하여 본인의 반복학습 뿐만 아니라, 방송에 관심이 많은 위원회 직원들도 수강을 할 수 있는 등 많은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표 2-44] 사이버연수 교육과정 편성표

차 시	강 좌 명	세 부 내 용
1	제1강 기획과 아이디어	- 기획의 의의, 입안과 생성 - 아이디어 발상의 전개
2	제2강 기획서와 구성안	- 프로그램 기획의 전제조건 - 기획서 및 구성안의 작성
3	제3강 PD가 들려주는 기획/구성의 실제	- 프로그램 기획/구성의 실제
4	제4강 기획 제안서, 큐시트, 대본의 실천 포인트	- 기획제안서, 콘티 쓰기 요령 - 교양프로그램 대본쓰기 요령 - 기획 제안서, 큐시트의 실례 - 다큐멘터리 대본작성의 실례

5	제5강 프로그램 제작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프로그램 제작과정의 개요 - 스튜디오 프로그램 제작과정 - 야외 프로그램 제작 및 실례 - 중계차, 종합구성, 외화제작
6	제6강 스튜디오 프로그램 제작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경, 실천적인 예 - Set와 Light / 스태프 회의 - 녹화-부조정실, 녹화-카메라워킹
7	제7강 TV카메라의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 카메라의 종류, 구성, 구조 및 원리 - TV 카메라와 눈과의 차이점 - 초점거리에 따른 렌즈의 특성
8	제8강 카메라의 기본 작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출(Exposure) - 피사계심도, 초점, 화이트 밸런스 - 셔터 스피드(Shutter Speed) 필터(Filter)
9	제9강 기본 구도 잡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메라의 구도 - 안전영역(Safety Zone) - 사이즈에 대한 '샷'의 구분 - 앵글(Angle) - 카메라의 위치(Camera Position) - 이미지너리 라인(Imaginary Line)
10	제10강 카메라 무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사체 및 카메라의 움직임 - 카메라 장착장비
11	제11강 조명의 기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 조명의 기본 - 빛의 특성 및 조명의 종류
12	제12강 기본 조명기법과 부속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점 조명 - 조명필터, 조명 부속기구 - 조명의 안전
13	제13강 TV음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리의 기본·3요소·중요성 - 영상매체와 소리
14	제14강 마이크론과 음향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이크론이란? - 변환장치에 따른 분류 - 지향성에 따른 분류 - 사용법에 따른 분류 - 마이크 종류에 따른 음색 - 시스템 구성, 커넥터 - 오디오 믹서, UV 미터

15	제15강 영상편집의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편집의 개요 · 기능 - 영상의 단위 - 편집의 기본 원칙, 편집유형
16	제16강 영상 편집메커니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면 전환, 비디오테이프 - 편집 시스템, 편집 과정
17	제17강 스튜디오녹화 프로그램의 실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 스튜디오 제작시스템 - 녹화준비 : Set, 조명, 오디오, 카메라 - 제작회의, 녹화, 편집
18	프로그램 메이킹 : 드라마	제18강 드라마란 무엇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드라마 Pre Production . 기획/시놉시스/대본 - 드라마 Production . 드라마 야외제작의 실제 헌팅, 촬영, 조명설계 동시녹음, 스크립터
19		제19강 드라마 제작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드라마 Production . 드라마 스튜디오제작의 실제 : 스튜디오제작의 특징 부조 및 세트 제작 - 드라마 Post Production . 편집, 음향, 종편 작업
20	프로그램 메이킹 : 다큐	제20강 시사다큐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사다큐멘터리 기획과정 . 아이템 선정의 문제 - 해외제작 시사다큐 제작단계 . 출발전 준비사항 체크 . 현지촬영의 유의점
21		제21강 시사다큐 제작의 실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사다큐 제작과정 . 다큐 촬영에서의 연출의 한계 . 현장감을 살리는 촬영컷 . PD리포팅의 특징 - 다큐멘터리 후반작업 . 현장성 고려한 편집 . 에필로그

다만, 방송의 제작과 장비 등의 실습을 직접 수행한 집합연수에 예산 등의 문제로 많은 인원을 참여시키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추후 예산 확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집합연수의 기회를 늘려가야 할 필요가 있겠다.

나. 제17대 대통령선거 방송토론 효과분석 연구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7대 대선 후보자 TV토론의 유권자의 인식 및 평가 등 관심도를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하여 후보자 TV토론이 유권자의 투표행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전문위원의 자문을 통하여 조사 설계안 작성한 후, 위원회가 조사 업체인 (주)월드리서치에 토론회 개최전·후 또는 토론회 개최전·투표후 유권자의 의식 변화 등의 확인을 위한 조사를 의뢰하였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을 활용하여 효과분석을 연구하였다.

이로써, 17대 대선 선거방송토론의 효과분석을 통한 바람직하고 내실있는 토론회 관리모델을 모색하고 향후 TV토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효율적인 미디어 선거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구축하였다.

[표 2-45] 선거방송토론 효과분석 개요

- 조사대상 : 만19세 남·여 유권자
- 조사지역 : 서울(비율에 따른 구역 할당)
- 조사수집 및 표본추출방법 : 면접조사, 무작위추출
- 조사기간 및 횟수 :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날부터 투표일후 1주일이내 중 총 3회
 - 1차조사 : 806명
 - 2차조사 : 623명
 - 3차조사 : 443명

조사는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TV토론의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서 패널(panel)조사를 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1차 조사는 중앙선거방송토론회가 주관하는 1차 TV토론(12월 6일) 전에 패널을 대상으로 806명에게 조사가 이루어졌다. 2차 조사는 중앙선거방송토론회가 주관하는 1차 TV토론을 시청한 패널을 대상으로 623명에게 조사가 이루어졌다. 3차 조사는 투표일이후에 3차 TV토론을 시청한 패널을 대상으로 443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1차 조사 결과

제17대 대통령선거 관련 주요 정보매체로는 지상파TV, 케이블TV, 신문, 인터넷 순으로 나타났다. 대선과 관련하여 매체별 관심을 가졌던 선거관련 뉴스내용을 알아본 결과, '후보자의 정책 공약', '후보자 인물·경력 등 개인 사항', '후보자의 선거쟁점에 대한 공방', 'TV토론'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대선관련 매체 이용은 대체로 남성이 여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대선관련 매체 이용은 지상파방송과 신문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이용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가지 신문, 케이블TV, 인터넷, IPTV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이용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 대선관련 매체 이용은 신문, 무가지, 케이블TV, 인터넷, 라디오, IPTV의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이용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상파방송과 케이블TV의 경우 학력이 낮을수록 이용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향별 대선관련 매체 이용은 대체로 서울출신 집단이 다른 지역출신 집단보다 매체 이용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17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에 대한 평가에서 이명박후보의 평가가 가장 높았다. 지지정당의 경우는 지지정당없음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지지정당없음을 제외하면, 한나라당 지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대체로 남성이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 지지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지지후보의 경우 권영길·문국현 후보의 경우 20·30대의 지지율이 높았으며, 이회창·이명박·정동영

후보의 경우 40대이상의 지지율이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 지지후보의 경우 권영길·문국현 후보의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지지율이 높았으며, 정동영·이명박 후보의 경우 고졸집단의 지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출신지역 또는 고향의 경우 이명박후보는 전라도출신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50%이상의 지지율을 얻었다.

후보자 이미지는 이명박, 이회창, 정동영, 문국현, 권영길, 이인제 후보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후보자에 대한 이미지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권영길·문국현 후보는 연령이 낮을수록 이미지 평가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명박후보는 연령이 높을수록 이미지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학력의 경우 문국현·이회창 후보의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이미지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고향의 경우 이명박후보는 서울과 경상도지역 출신이 높게 이미지 평가를 하였으며, 정동영 후보의 경우 전라도지역 출신이 높게 이미지 평가를 하였다.

② 2차 조사 결과

제1차 TV토론 시청 이유는 주로 '후보의 인물됨을 비교하고 싶어서'와 '후보의 정책을 비교하고 싶어서'이었다. 제1차 TV토론의 문제점은 후보자들의 인신공격과 짧은 발언시간이 주요한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에서는 유권자들의 TV토론 이용동기 유형을 알아본 결과, '정책/공약 파악(1요인)', '선거참여의 흥미/재미(2요인)', '이야기 소재 제공(3요인)', '후보자 정보습득(4요인)', 'TV토론 공정성 평가(5요인)', '선거 추이 파악(6요인)', '수동적 시청/정치참여(7요인)', '후보자와 준사회적 상호작용(8요인)', '능동적 관여/정치참여(9요인)' 등이 TV토론 이용동기가 나타났다. TV토론의 이용집단은 '수동적 정치참여 집단', '선거 관심집단', '능동적 정치참여 집단', '정치 무관심 집단', '일반적 정치참여 집단' 순으로 나타났다.

제1차 대통령후보자TV토론(2007년 12월 6일) 시청 이후에 지지정당의 변경이 이루어졌으며, 지지정당이 없는 계층이 한나라당지지로 가장 많이 바뀌었다. 지지후보자 변경 유무는 TV토론 시청후 지지후보자를 결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V토론 시청후 대통령으로 당선되길 바라는 후보자 변경의 경우 이명박후보자가 당선되길 바라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TV토론 시청후 지지 후보자 변경의 경우 이명박후보로 변경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인제후보지지자의 지지후보자 변경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1차 TV토론에서 토론자 평가의 경우 ‘설득력’, ‘새로운 정보 제공’, ‘매력’ 등의 항목에서는 이명박후보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말 잘함’은 정동영후보의 평가가 가장 높았다. 또한 제1차 TV토론 시청후 권영길, 문국현, 이명박, 이인제, 이회창, 정동영 후보 모두 시청전보다 이미지가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③ 3차 조사 결과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정보 획득 경로조사 결과, 지상파방송이 가장 주요한 매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투표행위에 영향력을 준 매체에 대한 조사결과, 지상파방송, 신문, 케이블TV, 인터넷, 무가지 신문, 라디오 순으로 나타났다. 투표에 영향을 준 매체/정보에 대한 조사결과, TV토론, TV선거보도, 주변 사람과 대화, TV 선거광고 순으로 나타났다. 투표참여자들은 불참자보다 1·2·3차 TV토론 시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참여자들은 불참자보다 이명박 후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참자는 투표참여자들보다 권영길·문국현·이회창·정동영 후보를 더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투표참여자들은 불참자들보다 정치적 성향이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7대 대통령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후보자 결정시 가장 많이 고려한 점을 조사한 결과, 인물/능력, 정책/공약, 소속정당 순으로 나타났다. 유권자들의 후보자

결정시기에 대한 조사결과, 조사대상자 중에서 50%이상이 투표일 1개월 전에 지지후보자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율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한 조사결과, '투표참여 홍보활동'의 필요성을 가장 중요하게 제기하였다. 제17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조사결과, '상호비방 및 흑색선전'과 '비현실적인 공약남발'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제기하였다. 선거기간 중에 공명선거 홍보활동 주요매체에 대한 조사결과, TV/라디오 광고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제3차 대통령후보자TV토론 전·후에 지지정당의 변경에 대한 분석결과, 한나라당 지지자의 변동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3차 TV토론 시청후 지지후보의 변경 유무에 관한 분석결과, 제3차 TV토론을 시청한 사람들은 지지후보자를 어느 정도 결정하는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3차 TV토론 시청후 대통령으로 당선되길 바라는 후보자 변경에 대한 분석결과, 이명박·정동영 후보의 경우 변경된 비율이 가장 낮았으며, 지지자 수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3차 TV토론 시청후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태도 변화에 관한 분석결과, 대체로 TV토론 시청은 태도의 변화보다는 강화 및 유지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3차 TV토론 시청후 이미지가 좋아진 후보 변경에 대한 분석결과, 대부분의 후보자 지지자 중에서 약 30%가 이명박 후보자의 이미지가 좋아진 것을 평가하였다. 제3차 TV토론 시청후 대통령선거에서 지지한 후보 변경에 대한 분석결과, 이명박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가 가장 많았으며 TV토론 시청 이후에도 지지도의 변화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변화는 이명박 후보에 대한 지지도 변화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17대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들의 선거광고에 대한 유권자들의 접촉 건수를 정리하면, 이명박 후보의 경우 방송, 신문과 인터넷 선거광고 접촉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정동영 후보, 이회창 후보, 문국현, 권영길, 이인제 후보 순으로 접촉 건수를 보였다. 제17대 대통령선거 기간 중 선

거광고의 영향력을 조사한 결과, 방송선거광고, 신문선거광고, 인터넷 선거광고 순으로 영향력을 미쳤다고, 조사대상자들이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선거에서 매체 선거광고 중에서 방송 선거광고가 유권자의 투표행위에 가장 큰 긍정적 영향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5 절 바람직한 민주시민 토론문화의 육성

1. 개 요

대학생들의 올바른 토론관 확립 및 민주시민 토론교육의 일환으로 2005년부터 이어진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를 2007년 6월 9일부터 10일 양일간 전국 22개 대학교의 58개팀 116명 학생이 참가하여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가 주관하고 경기대학교와 KBS, MBC가 후원한 가운데 경기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제3회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를 개최하였다.



대회 심사위원으로 전국 32개 대학교의 교수 67명이 심사를 보았으며 77명의 행사진행요원 등 총 260여명이 행사진행에 참가하여 대내·외의 높은 관심속에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2. 주요 추진실적

제3회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 개최

대회는 “인터넷선거운동은 상시 허용되어야 한다.”라는 논제로 아카데미식 토론방식 중 CEDA방식에 의해 토론이 진행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자체 개발된 토론진행방식이 없어 이번 제3회 대회를 포함, 지난 1, 2회 대회 모두 CEDA(미국교차토론협회)방식을 채택하여 사용하였다.

대회 결과, 학생들의 전반적인 논리전개 능력 및 사전 준비 사항 등이 지난 대회보다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였으나, 대회 결과의 언론보도로 토론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효과가 배가되었다.

다만, 본 대회의 참가자가 각 대학교의 토론동아리 중심으로 이루어져, 토론문화의 저변 확대라는 대회 개최의 목적과 일부 부합되지 아니한 점이 있는 등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는 CEDA 방식이 자신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한 토론으로 흐르는 문제점이 있고 단일의 토론 방식을 사용할 경우 토론교육이 고착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우리나라 토론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는 각종 선거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위원회 자체적으로 우리 실정에 적합한 토론진행방식을 개발·보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관계전문가 교수 등과의 적극적인 협의·연구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표 2-46] 제3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 결승전 토론요지

찬성측	반대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 확대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는 후보자만 의견개진이 가능하고 유권자는 의사개진에 제약이 따름 ○ 오프라인 선거운동보다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의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정치 신인 및 군소정당에 유리 ○ 저렴한 비용으로 정치적 이익 극대화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비용 고효율의 정치 가능 ○ 유권자의 정치적 관심 증가와 후보자의 유권자 의견 수렴에 유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공간적 격차 해소 - 쌍방향성 (즉각적 반응 반영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운동 비용의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함에 따라 선거운동 기간이 늘어나 결과적으로 선거운동 비용의 증가 초래 - 저렴한 비용으로 인해 정치 신인 및 군소정당에 유리하다고 찬성측은 주장하나 홈페이지 관리 및 인터넷을 통한 광고에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감에 따라 결국 상시허용시 기존 거대 정당에 유리할 수 밖에 없음 ○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 저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미지 선거의 조장 - 부정적 폭로전으로 변질 가능 ○ 정치문화의 질적 발전 저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흑색비방 난무 우려 ○ 인터넷 선거운동의 기준 불명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인터넷에서 허용되는 선거운동의 기준이 불명확하여 인터넷 선거운동의 상시허용 전에 기준 정립이 선행되어야 함



이 대회에서 대상은 서울대학교 양현모, 김혜영 학생이 수상하였고, 최우수상은 경희대학교 서지희, 정지은 학생이 수상하였다. 자세한 수상내역은 [표 2-47]과 같다.

[표 2-47] 제3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 수상내역

시상내역	시 상 명 칭	수 상 자		상 금
		소속 학교명	성 명	
대 상	위 원 장 상	서 울 대 학 교	양현모, 김혜영	200 만 원
최우수상	학 회 장 상	경 희 대 학 교	서지희, 정지은	150 만 원
우 수 상	위 원 장 상	한 동 대 학 교	이동규, 김광세	각100만원
		한 동 대 학 교	이성일, 류지윤	
장 려 상	위 원 장 상	성 균 관 대 학 교	성시은, 오희승	각 50 만 원
		연 세 대 학 교	채윤경, 문여진	
		숙 명 여 자 대 학 교	신하영, 김보미	
		한 동 대 학 교	권지애, 송강원	
Best 스피커상	성균관대학교 총 장 상	서 울 대 학 교	김혜영	상 장
2nd 스피커상		한 동 대 학 교	류지윤	
3rd 스피커상		연 세 대 학 교	류지은	
스피커상		청 운 대 학 교	강병욱	
		서 울 여 자 대 학 교	김민정	
		동 서 대 학 교	김은지	
		전 북 대 학 교	박 린	
		숙 명 여 자 대 학 교	배현진	
		계 명 대 학 교	신은지	
		대 구 가 톨 리 크 대 학 교	이대웅	
		경 기 대 학 교	조용빈	
		동 명 대 학 교	진은석	
경 희 대 학 교		허길중		

제 6 절 제18대 국회의원선거 방송토론 관리역량 강화

1. 개 요

2008년에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의 완벽한 방송토론 준비를 위하여 2004년 3월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창설된 이후 최초로 전 토론위원회 직원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토론의제와 토론회 개최여건 등을 고려한 진행방식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함으로써 선거방송토론 주관·진행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였다.

2. 주요 추진실적

가. 선거방송토론 관계자 실무연수회 개최

2007. 3월에 실시한 선거방송토론 위탁연수의 연장선상에서 선거방송토론에 관한 이론과 실무에 대한 심층적인 교육과 업무전문성을 강화함은 물론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2007. 5월중 2차로 구분하여 시·도 및 구·시·군토론위원회의 방송토론 실무담당자 262명을 대상으로 2박3일의 실무연수회를 개최하였다.



[표 2-48] 실무연수회 개최 현황

구 분	교육기간	교육장소	교육일수	연수인원
제1차	2007. 5. 1 ~ 5. 3	무주리조트	2박3일	총 133명 (남 : 112명, 여 : 21명)
제2차	2007. 5. 15 ~ 5. 17	오션캐슬	2박3일	총 129명 (남 : 99, 여 : 30명)



실무연수회는 외부강의와 실무교육, 분임토의 등으로 구성하여 1일차에는 이론위주의 강의를 2~3일에는 실무위주의 강의를 함으로써 선거방송토론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직원들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표 2-49] 실무연수회 연수내용

구 분	강 사	내 용
외부 강의	경북대 이강형 교수	미디어 선거와 TV토론
	KBS 선거방송팀 이경호 기자	TV토론 제작의 실제
실무 교육	방송토론팀 장진윤	선거방송토론 이론과 형식
	토론지원팀 장원재	선거방송토론 실무
문화 활동	단국대 조주우 교수	즐거운 우리가락(충남국악관현악단)
분임토의/ 종합토론		현행 토론진행방식의 운영상 문제점 및 대안 후보자의 토론기피 현상에 대한 대처방안

다만 종합토론시간에 주어진 주제에 대한 토론 이외에 타 시·도에 전파 가치가 있는 경험사례(성공·실패 사례)의 발표 시간 기회가 부족하였고, 큐시트 및 시나리오 작성 등에 대한 실습 과정이 편성되지 않아 현장 실무능력 향상에 다소 미진한 점도 발견되었다.

“미디어 선거와 TV토론” 주제로 경북대 이강형 교수는 TV토론의 발달과정 특징 및 2002년 대통령 선거 TV 토론에 대한 평가에 대한 강의를 실시하였으며, KBS 이경호 기자는 “TV토론 제작의 실제”란 주제로 토론프로그램을 직접 제작

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토론회 좌석배치 및 세트제작 등 실무에 대한 강의를 하여 이론과 실무를 모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단순 교육교재에 의한 강의가 아닌 파워포인트 자료 등 강의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있었다.



다만, 토론회 제작시 방송국과의 업무협약시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한 언급은 있었으나, 그 문제의 해결 방안을 위원회 직원들과 함께 논의를 할 시간이 부족하여 단순 문제제기 차원에서만 그쳐 추후에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 갈 수 있는 방안을 토의해 볼 수 있는 시간도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실무교육에 있어서는 선거방송토론이 활성화 되어 있는 미국, 프랑스, 독일의 선거방송토론의 발달과정과 TV토론회의 동영상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외국의 선거방송토론과 우리나라 선거방송토론을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토론회 개최 실무에 대한 교육으로서 토론회 제작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과 각 부분별 중요 사항에 대하여 법과 규칙 및 운영규정의 조문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며, 제18대 국회의원선거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실질적인 교육이 되었다.

다만, 각 2시간 정도의 강의 시간이 배정되었으나,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문 및 토의를 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여 추후 편성시에는 실무교육에 대한 강의 배정시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분임토의에서는 선거방송토론의 제작시 문제가 되고 있는 현안쟁점 및 대처방안에 대하여 심층적이고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통해 문제의식을 갖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고, 종합토론에 선거방송토론의 상호토론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후보자 초청 대



담·토론회시 후보자들이 겪는 어려움(시간 조절등)에 대하여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개선사항으로는 종합토론회 토론에 참가한 토론자만 적극적으로 토론에 임하고 나머지 분임원들의 수동적 참여가 다소 아쉬웠으며, 워크숍 전체 일정표가 실내에서의 교육만으로 편성이 되어 추후에는 실외에서 분임간 또는 전체 위원회 직원간 단합을 위한 교육 시간의 편성이 필요할 것이다.

나. 토론의제 및 진행방식의 지속적 발굴

시·도 및 구·시·군토론회위원회는 각종 선거에서의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공정하고 원활하게 개최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토론의제와 토론회 개최여건 등을 고려한 진행방식을 연구·개발하였다.

제 7 절 재·보궐선거 및 교육감선거 토론회 등 관리

1. 개 요

각급토론회위원회는 2007년 상·하반기 재·보궐선거 및 교육감선거 토론회 등의 공정하고 완벽한 관리로 정책선거 실현에 기여하고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한 정당·후보자의 정책·공약 검증의 토론회로 관리하는 등 시·도토론회위원회가 관련업무 전반에 대한 지원 및 확인·점검하여 관리하였다.

또한, 과거 각종 선거에서의 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대담·토론회 및 합동방송연설회를 한치의 흠도 없이 완벽하게 관리함으로써 정책선거 분위기를 정착 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내부적으로는 토론회 관리 능력을 배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방송사고 및 후보자의 이의제기 등이 없이 전반적으로 안정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미디어 정책선거운동의 기초를 바탕으로 후보자들이 방송을 통하여 정책과 공약사항을 유권자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였다.

2007년 실시된 상·하반기 재·보궐선거 및 교육감선거에서 총 28회의 선거방송토론이 개최되었다.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토론회는 3회가 개최되었으며, 방송연설회는 1회가 개최되었다. 기초단체장선거에서는 모두 14회의 토론회가 개최되었으며, 방송연설회는 5회가 개최되었다. 교육감선거에서는 모두 6회의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표 2-50] 선거방송토론 개최 현황

(단위 : 회)

시기별	선거별	합 계	대 담 · 토 론 회				방 송 연 설 회			
			소계	초청	비초청	합동	소계	초청	비초청	합동
합	계	28	22	12	2	8	6	3	2	1
상반기	국 회 의 원	3	2	1	-	1	1	1	-	-

상반기	구·시·군의장	7	4	3	-	1	3	2	1	-
하반기	구·시·군의장	12	10	4	-	6	2	-	1	1
교	육	감	6	6	4	2	-	-	-	-

2. 주요 추진실적

가. 상·하반기 재·보궐선거 토론회 등 관리

1) 토론회 일반

토론주제(질문사항)의 선정(작성)·토론진행방식의 결정을 위한 소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합 구성하여 소위원회의 협의내용·결과 등을 문서화하여 관리하고, 그 운영결과를 차기 위원회의에 보고하였다.

[표 2-51] 소위원회 구성 현황

(단위 : 개)

시 기 별	합 계	주제선정 소위원회	진행방식작성 소 위 원 회	준 비 소위원회	비 고
합 계	16	8	3	5	
상 반 기	7	5	1	1	
하 반 기	9	3	2	4	

특히, 방송계·학계 등의 외부 전문가등으로 구성된 전문위원을 주제 선정, 질문사항 작성 분야에 적극 활용하되, 종합유선방송사의 중계방송이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담당 PD 등 제작 관계자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였다.

[표 2-52] 전문위원 활용 현황

(단위 : 명)

계	학 계	방송계	기타	비고
4/10	-/1	3/5	1/4	

주 : 4.25/12.19

전문위원 구성 및 운영상황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학계보다는 방송계가 많았는데 이는 중계방송사의 방송토론 업무담당자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함으로써 방송시간 일정협의 및 질문사항 작성 등에 적극 참여시키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 토론회 일시·장소·중계방송사 결정

시·도토론회위원회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개시일까지 토론회의 중계방송을 위한 방송시설명·이용일자·시간대등을 통보받을 수 있도록 선거구를 관할하는 공영방송사와 사전에 초청대상 후보자 대담·토론회,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 대상 대담·토론회 기타 합동방송연설회 개최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협의하였다.

다만, 공영방송사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중계방송이 어려울 경우 다른 지상파 방송사나 종합유선방송사중 중계방송이 가능한 방송사를 선정하였다.

[표 2-53] 4.25 국회의원재보궐선거 선거방송토론 개최 현황

선거구명	대전 서구	경기 화성시	전남 무안신안군
개최일시	4. 19(목) 22:00~23:00	4. 18(수) 14:07~15:14	4. 17(화) 15:00~17:20
개최방법	토 론 회	토 론 회	초청대상 : 토론회 비초청대상 : 방송연설
중계방송사	K B S	수 원 방 송	K B S
방송방법	생 방 송	녹 화 방 송	녹 화 방 송

[표 2- 54] 4.25 기초단체장재보궐선거 선거방송토론 개최 현황

선거구명	서울 양천구	경기 동두천시	경기 양평군	경기 가평군	충남 서산시	경북 봉화군
개최일시	4. 20 (금) 19:00~20:30	4. 17 (화) 10:00~11:05	4. 17 (화) 13:00~15:25	4. 17 (화) 16:06~16:18	4. 20 (금) 10:25~11:15	4. 23 (월) 23:30~4. 24 (00:30)
개최방법	토론회	토론회	초청대상 : 토론회 비초청대상 : 방송연설	방송연설	방송연설	토론회
중계방송사	CJ케이블넷 양천방송	나라방송	경동방송	경동방송	한국케이블 TV 충남방송	K B S
방송방법	생방송	녹화방송	녹화방송	녹화방송	녹화방송	생방송

토론회 일시는 선거구민의 시청이 많은 시간대가 확보될 수 있도록 중계방송사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 후 결정하였는데, 선거일 1~2일전에 토론회를 개최하는 경우 후보자로서는 토론회 개최 결과 제기된 의혹이나 쟁점에 대해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정을 결정하였다.

특히, 실시요건 미비로 토론회를 개최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합동방송연설회 중계방송일정 등도 함께 협의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토론회 개최장소는 중계방송사의 스튜디오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스튜디오 사용이 어려울 경우 중립적이면서 방송중계에 적합한 외부공간을 이용하였다.

각종 재·보궐선거에 있어서의 토론회 등의 자세한 개최현황은 [부록]으로 수록하였다.

3) 참여 대상자 결정

초청대상 후보자를 결정함에 있어 해당 선거구내의 예비후보자 명단 또는 입후보예정자 명단을 전국단위 언론사 및 당해 선거구역을 방송권역(보급지역)으

로 하는 언론기관에 통보하고 지지도에 관한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사전에 협조 요청하였다.

토론회 참석대상 후보자 중 당선 유력 후보자가 불참하여 토론에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였으며 불참시에는 유권자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점과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불참 사실이 고지된다는 점을 안내하고 불참사실이 언론기관을 통해 보도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토론회의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에 대한 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1회이상 개최하도록 하였으며, 가급적 초청대상 후보자의 토론회와 같은 방송시설 및 시간대에 방송이 이루어지도록 협의하였다.

4) 사회자 및 질문자 선정

기 구성된 사회자 풀 명단을 활용하되, 선거방송토론 진행 유경험자를 위주로 하였다. 사회자는 토론회마다 1인을 선정(동일인을 다시 선정하는 것도 가능)하되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예비후보자를 미리 확보토록 하였다.

사회자가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동의나 부정의 뜻을 담은 멘트 또는 제스처를 하는 것을 삼가고, 후보자의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본인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도록 안내하였으며 선정된 사회자를 설명회 개최시, 토론진행표·시나리오 작성 등에 참여토록 하여 사전에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치도록 배려하였다.

[표 2-55] 사회자 선정 현황

(단위 : 명)

계	학 계	방송언론계	시민단체	법조계	기타	비고
10/11	5/5	2/5	-/-	2/-	-/1	

주 : 4.25/12.19

5) 주제·질문사항 및 토론진행방식 선정(결정)

학계·언론계·법조계·시민단체·경제단체 및 노동단체 기타 각 분야의 전문

가로 구성된 단체에 주제 추천을 요청하되 기 추천 요청 결과 주제 추천 실적이 전혀 없거나 소극적인 단체는 배제하고 각 분야별로 추천 가능 단체를 지속적으로 물색하였다.

또한,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역현안 등을 위주로 주제를 발굴하였으며,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지역현안 중심의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제 선정에 참고하였으며 제한된 토론시간에 여러 다양한 주제를 다룰 경우 깊이 있는 정책토론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가급적 적은 수의 핵심 주제로 선정하되, 예비주제를 1~2개 정도 추가 선정하였다.

특히, 특정 후보자의 대표적인 정책·공약 등을 사전에 확인·점검하여 주제 선정에 관한 편파 시비에 대비하였으며, 초청대상 후보자 토론회와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 토론회의 토론주제는 일부 중복될 수는 있으나, 완전히 동일한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할 수는 없음을 유의하여 선정하였다.

[표 2-56] 국정분야 토론주제 선정 결과

(단위 : 개)

계	정치제분야						경제제분야			사회제분야					
	정치	통일	외교	안보 국방	행정	기타	경제 노동	과학	기타	복지	교육	환경	문화	여성	기타
10/4	2/-	-/-	-/-	-/-	-/1	-/-	4/-	-/-	-/-	2/1	2/-	-/2	-/-	-/-	-/-

주 : 4.25/12.19

[표 2-57] 지역분야 토론주제 선정 결과

(단위 : 개)

계	지방 자치	경제 노동	산업	복지	교육	환경	문화	여성	기타	후보자 자질	비고
15/38	6/13	13/21	2/10	10/11	7/8	4/8	8/8	1/-	3/4	6/8	

주 : 4.25/12.19

질문사항은 후보자에 대한 공통질문사항과 개별질문사항으로 구분하여 작성하

였으며 질문사항을 사회자 또는 위촉된 전문위원이 작성할 수 있도록 사전 협의하여 진행하였다.

질문의 횟수·내용·강도·난이도 등에 있어 후보자간 형평을 유지하고 결정된 질문사항의 보안에 특히 유의하여 토론회의 개최시작 전까지 비공개 관리하였으며 토론회가 예정시각보다 앞서 종료될 것에 대비하여 잔여시간에 사용할 예비질문을 사전에 준비하였다.

토론 진행방식은 초청대상 후보자 모두를 초청하는 합동토론을 원칙으로 하고 사회자 공통질문형·개별질문형, 후보자간 상호토론 및 후보자 주도권형 등 다양한 토론포맷을 도입·시행함으로써 내실있는 토론회를 유도하였다.

또한, 지난 토론회 개최시 제기된 진행방식상의 문제점을 파악·보완하되, 포맷의 수가 많을 경우 토론이 산만하게 진행될 수 있음을 유의하였다.

[표 2-58] 토론진행방식 선정 결과

(단위 : 개)

계	기조연설	사회자질문형		후보자질문형			혼합형	맺음말	기타	
		공통질문형	개별질문형	공통질문형	개별질문형					주도권형
					답변자추첨지정	답변자자유지정				
12/31	7/13	22/21 (6)/(4)	15/17 (14)/(5)		4/2 (1)/(3)	15/2 (15)/(2)	6/5 (6)/-	-/1	7/9	-/3

주1 : 4.25/12.19

주2 : ()안은 보충질문형을 사용한 경우

토론진행표(cue-sheet) 및 시나리오는 토론위원회 주관 하에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방송전문가 등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활용하였으며, 시나리오에는 사회자의 오프닝멘트시 토론회의 개최근거, 주관기관명, 토론주제 선정경위 및 발언순서 결정방법이 안내될 수 있도록 작성하였다.

설명회는 참석 후보자가 사전에 토론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토론회 공표후 지체없이 개최하였으며 한 번의 본 주첨으로 좌석과 발언순서를 일괄 결정하였다. 그리고 대리인이 참석한 경우에는 설명회시 안내한 사항과 배부자료가 후보자에게 바로 전달되도록 주지하였다. 이는 후보자가 토론진행방식을 숙지함으로써 자신의 질문시간이나 시간총량제에 의해 주도권을 부여받은 시간에 토론을 하지 않고 자신의 신상발언을 계속 이어가는 일이 없도록 강조하는 등 방송진행상 예상되는 사고 등을 미연에 막기 위한 것이었다.

6) 토론회장 설비·진행 등

토론회장은 스튜디오 설비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설비하거나 중계방송사의 협조를 받아 설비하였으며, 세트 배경은 어느 쪽에서 카메라를 비추어도 후보자간 차이가 나지 않도록 제작하였다.

또한, 후보자가 토론회장에서 어깨띠나 리본을 몸에 두르거나, 정당의 상징물 등을 부착시켜 의상에 부착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였으며 특히, 토론자 준수사항을 충실히 안내하고 후보자가 토론중에 지참한 자료를 방송화면에 표출하지 않도록 강조하였다.

발언시작시각, 발언종료시각 등의 표시는 종이나 벨을 사용하는 대신 라이트를 점등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후보자 발언시에 타 후보자의 발언이 끼어들거나, 기침 소리 등이 뒤섞여 차분한 토론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질문 또는 답변하는 후보자 외의 후보자 마이크는 작동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수화 또는 문자방송을 하면서 방송 중간마다 청각장애우를 위한 자막방송중이라는 자막방송을 실시하였으며 시·도토론위원회는 관내 토론회의 수화통역에 필요한 수화통역사를 확보하였다.

토론회의 중계는 생방송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편집없이 녹화방송을 하였으며 토론회의 방송화면이 공정하게 구성되도록 중계방송사에 사전 안내하였다.

토론회 진행중 허위사실의 공표나 후보자 비방 등 선거법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후보자들에게 위법 발언 자제 및 선거법 준수를 요청하였으며 토론진행중에 후보자의 발언이 인신공격에 이르거나 기타 토론규칙에 어긋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사회자가 주의 멘트를 반드시 하도록 조치하였다.

토론회장의 관계자의 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였으나 장소 면적 등을 참작하여 최소한의 인원에 한해 후보자별로 균등하게 출입증을 배부하여 방청을 허용하였다.

나. 합동방송연설회 관리

토론회의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에게도 방송연설회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가급적 초청대상 후보자의 토론회와 같은 방송시설 및 시간대에 방송이 이루어지도록 협의하였다.

또한, 중계방송사에서 이미 토론회를 위한 중계방송 일정을 통보한 후에 연설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중계방송 일정을 연설회 일정으로 같음하였다.

그리고 연설회의 사회자는 토론회에 이어 연설회가 이어짐에 따라 토론회 사회자가 이어 사회를 진행하였으며 후보자의 연설 순위는 사전에 추첨으로 정하였다.

또한, 합동방송연설회의 연설시간은 후보자마다 10분 이내의 범위에서 균등하게 배정하였으며,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수화통역 또는 자막방송을 실시하였다.

다. 교육감선거 토론회 등 관리

중앙토론회위원회는 2007년 교육감선거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가 시·도지사 선거의 경우를 준용하여 개최됨을 시·도토론회위원회에 충분히 안내하였으며

특히, 전국 최초로 실시된 주민직선제 부산교육감선거 후보자 토론회는 토론위원회 직원 및 후보자, 방송관계자들의 관심이 높아 대체적으로 원활하게 진행되어 추후 개최된 교육감선거 후보자토론회의 좋은 시발점이 되었다.

2007년 개최한 교육감선거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등의 자세한 개최현황은 [부록]으로 수록하였다.

[표 2-59] 2007년 교육감선거 선거방송토론 개최 현황

선거구명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충청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개최일시	2007. 2. 7(수) 09:30~11:00	2007.12. 7(금) 23:00~00:40	2007.12. 4(화) 00:20~01:25	2007.12.14(금) 23:00~00:40	2007.12. 5(수) 18:30~19:45	2007.12.13(목) 22:00~23:00
개최방법	토론회	토론회	토론회	토론회	토론회	토론회
중계방송사	부산 M B C	울산 M B C	K B S 청주, 청주 M B C	K B S 창원	제주 M B C	K B S 제주
방송방법	생방송	생방송	생방송	녹화방송	생방송	생방송

특히, 2007년 2월에 실시된 부산시교육감선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후 처음 실시되는 교육감 선거의 후보자 토론회임에도 그동안 공직선거 후보자 토론회 개최를 통해 쌓은 관리 경험을 토대로 유권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토론회로 이끌었다.

또한, 토론주제에 있어서도 교육자 및 후보 자질, 교육환경 등 교육감선거 고유의 주제를 다루어 비교적 심도있는 토론이 진행되었다.